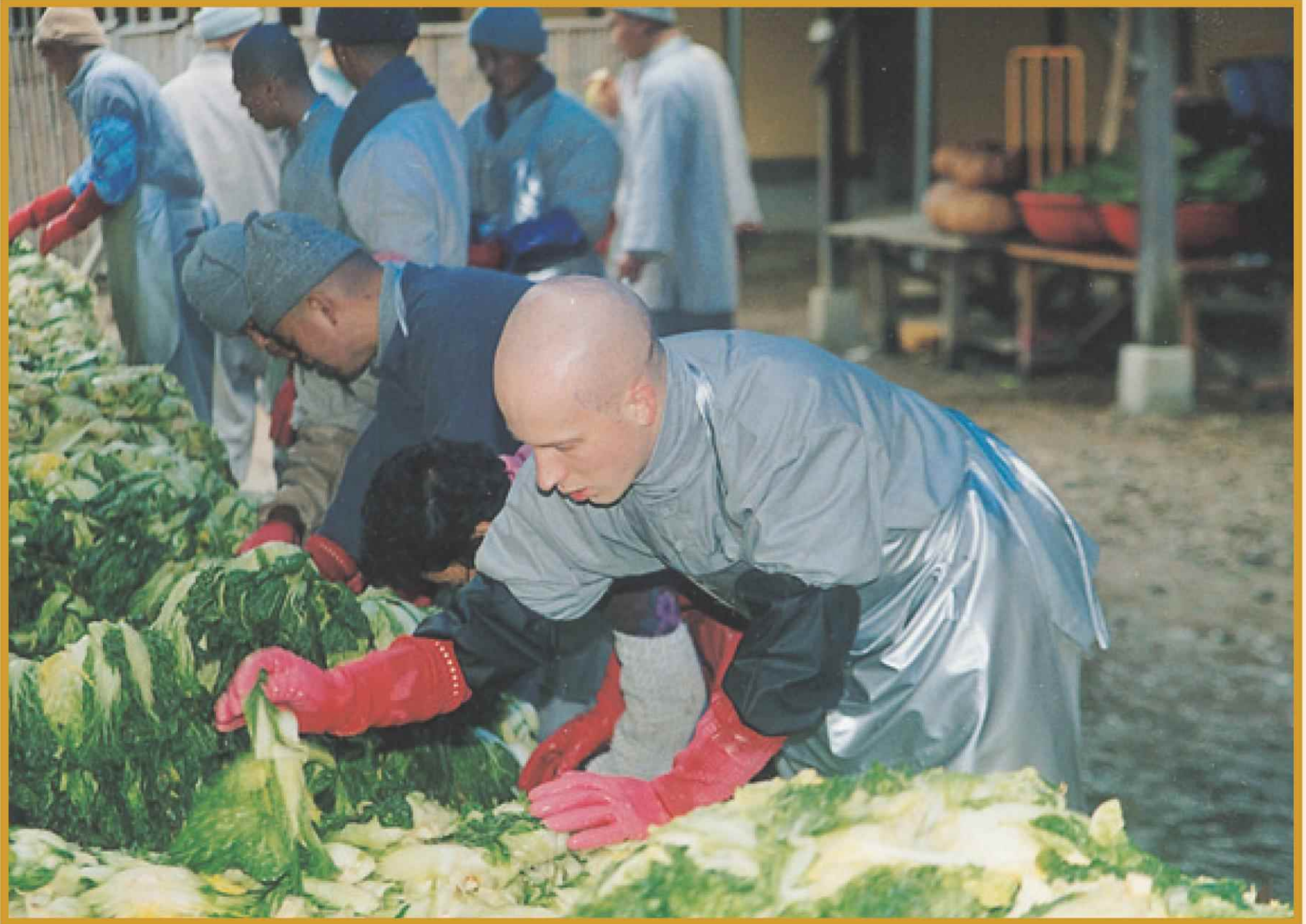


定慧社

불기 2547년 겨울 | 제26호



송광사 전통강원

인간복제 人間複製

얼마 전 미국의 한 종교단체는 유전자를 복제한 태아가 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간의 복제' 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일어났으며 복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불교계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교계를 대표할 만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복제 인간도 불성이 있다', '인간의 복제 또한 연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등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 불교인들이 인간의 복제로 인하여 절대적 신관의 허구성과 함께 연기법의 과학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교계 내에서는 불교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며 자연과학의 이론을 끌어다가 부처님의 교설을 왜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써 어떤 이들은 물리학 이론과 불교 교리를 비교하여 에너지(energy)는 공空이고 입자粒子는 색色이어서 에너지와 입자의 이중성二重性이론이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연기법緣起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심지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불교의 과학성이 입증되고 결국 불교가 21세기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연기법은 물리이론이 아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중생이 미혹과 업 그리고 고통 사이에서 허망하게 윤회하는 모습을 설명한 마음의 인과법칙이다. 나아가 허망한 마음의 인과에서 벗어나는 길로써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제시한다. 곧 연기법은 업과 윤회 그리고 해탈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과학적 합리성이 아닌 계율이라는 윤리적 삶을 출발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의 지혜에는 분석과 논리를 넘어선 뜻 생명을 위한 자비로움이 함께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법의 진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모든 생명의 윤리적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첫걸음이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칠불통계七佛通偈에도 나타나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계율에 입각한 윤리적 삶을 시작으로 한다. 지구촌을 어수선하게 했던 논쟁 역시 자본과 기술에 예속된 인간의 탄생에 대한 윤리적 의문이었다. 불교의 윤리는 계율이다. 불살생不殺生은 단순한 계율적 금지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에 가해진 구속과 제약을 타파하고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윤리적 선언이며 연기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의 문제는 계율에 입각하여 불교적 윤리를 제시해야 할 문제이지 연기법의 과학성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과학 기술로는 결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 성찰로 그 해답을 제시한다.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종교적 대안과 윤리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불교는 종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합리성과 과학성에 매몰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도하고 종교적 역할마저 잃어가고 있는 일부의 불교인들을 보면서 '사자는 제 몸 속의 벌레로 인하여 죽어간다' 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定慧社

불기 2547년 겨울호 | 통권 제26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임오년 동안거 반결재 법문 | 범일 보성
- 6 특별기획
입지발원문 | 현진
- 9 법성료 메아리
정화 | 현진
가피 | 승석
- 11 동문기고
후배스님들에게 | 진관
- 13 기획연재
9세조사 담당국사
10세조사 혜감국사 만항
- 18 지대방 이야기
삭발 이야기 | 도갑
치문 겨울나기 | 인법
아! 치문 | 보순
From 초발심자경문 To 치문경훈 | 정달
수희찬탄 | 대정
- 25 정혜탐방
서울 칠보사 조실 석주 큰스님
- 30 경전 한 구절
반석
- 31 목우단상
대중생활 속의 독살림 | 능인
자기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 혜일
가정정토를 발원하며 | 지명
상생죽필문4 | 도해
두려운 편리 | 성경
- 39 특별취재
송광사강원총동문회
- 42 바람소리 한 자락
도반을 보내며 | 무량
한 해를 맞이하여 은사스님을 회상하며 | 향음
- 44 시가 있는 풍경
소나무 | 선광
무제 | 혜덕
정견2 | 효산
- 47 학인기고
몽산법어(영역) | 해안
- 51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55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찬바람에
대중 스님들 모두가 팔을 걸었습니다.
조계산 언덕 위에 잘 자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개울물에 씻어내니
평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뽕안 배춧잎에
정갈함이 느껴집니다.
고향의 겨울은 어떠했는지...
눈푸른 스님의 땀방울 속에
조계산의 겨울이 그렇게 깊어 갑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기철(입승)
편집장 | 해진
편집 | 인호·도갑
사진 | 인호

발행일 |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10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妄道始終分兩頭
終經春到似年流
試看長天何二相
浮生自作夢中遊

글 | 학명선사·사진 | 편집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학명선사(1867~1929): 일제 말기 때 승려로 영광 불갑사에서 출가하여 내장사에서 선농일치를 폈다.

방장스님 법어

임오년 동안거 반결재 법문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른다 했습니다. 벌써 겨울철 안거도 반 살림이라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반 이라 하지만 참으로 반 인줄 알면 남은 공부가 쉽겠지요. 공부가 반이 된 줄만 알면 참 다행이겠지요.

유명한 노방거사가 마조스님을 참방했을 때 ‘不與萬法으로 爲侶者誰오’ 모든 만법으로부터 착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마조스님께서는 ‘一口吸盡西江水하라’ 한입으로 저 서강수를 들이켜 마셔야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不與萬法으로 爲侶者誰오’ 우리가 흔히들 분별심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甲論乙駁하며 매일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一口吸盡西江水하라’ 더이상 구구절절이 일러줄 수가 없었습니다.

조주스님께서 80세 노령에 주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3조 스님의 후

신이라는 조주스님입니다. 3조로 계실 때 “스님! 지금 가시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하니까 “다음에 조주에서 만나세” 하시고 조주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밤중 자시에 마음경계가 잠시라도 그칠 때가 있었다. 생각하니 천하의 출가인중에 나 같은 주지가 몇이나 있을까? 흙 자리 침상에 헤진 갈대 돛자리 해묵은 느릅나무 목침에 덮개는 아예 없네. 불전에는 안식향을 사르지 못해 세속에서 오분향 냄새만 난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경계를 소개를 하신 겁니다. ‘흙 자리 침상에 헤진 갈대 돛자리.’ 우리는 조금만 더러워도 조금만 헤쳐도 “원주스님 이불 갈아주세요. 방석 갈아주세요.” 하지만은 ‘덮개는 아예 없네.’ 덮는 이불조차 없단 것이다. ‘안식향을 사르지 못해 세속에는 오분향...’ 그저 향이라고 올렸는가 봅니다.

이 글을 보면 참 얼마나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을 원님이 참방 왔을 때 조주스님이 뼈거덕거리며 흔들리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스님! 침상을 하나 해드리지요.” “걱정 마시고 백성 일이나 잘 보세요.” 하시며, 그야말로 청빈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생기는 대로 지내야겠다 하는 그런 어른의 자취를 보며,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좋은 환경에서 따듯한 밥 먹고 하면서 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주세요. 지금과 같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며 한결음만 살펴주신다 하게 되면 지구촌 시대는 스님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납월 8일도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당신의 일대사를 다 해마치셨다 하지만 부처님보다 두 곱이나 산 나는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참괴심을 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제도해 주세요!

부처님은 당신이 새로운 법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개한 거예요. 그야말로 각자가 소유한 것을, 망각한 것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일러 주신거지 어떠한 새로운 법을 일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처럼 어떠한 이상을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스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력하여 여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몸이 좀 나면 공부해야지.’ 이제 그 마음도 할 수가 없어요. 끽끔 앓으면서라도 그래도 공부해야지 하는 공부한다는 생각만 하게 됐지 제발 이 병이 나오면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생겼어요. 一代時教를 마친 젊은 24살 청년 경허스님이 만허스님을 다시 찾아뵈러 가는 길에 콜레라 병을 앓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소낙비가 내리기에 한 집에 가서 비를 피하려는데 주인이 벼락소리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한 집도 아니고 여러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내가 부처님의 一代時教를 다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몸이지만 이럴 때가 되어서 무엇을 안다고 자부하겠는가! 거기에 몸이 떨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살핀 게 없구나!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게 없구나 싶어가지고 학인들을 다 흠어지라 하고 당신은 시퍼런 칼 하나 들고 정진실에 들어가서 일대사를 다해 마쳤다고 하듯이 이 공부는 보통으로 생각 하다가는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입는데 먹는데 좋은 조건에 허송세월만 한 것이 내 신세가 아니던가!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 양심입니다.

자! 납월 8일 하지마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맘 놓고 이번 일주일 한번 다그치게 정진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오줌똥을 싸더라도 한바탕 지어주세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기획

입지발원문立志發願文



지난 해 10월 15일 송광사 대웅전에서는 여천무비如天無比 대강백大講伯의 전강식傳講式이 있었습니다. 전강식은 강맥講脈을 전수傳受하는 의식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경학의 법맥을 전수하는 불가의 의식입니다.

이날 전강식에서는 현진玄珍스님을 비롯한
9분의 스님이 강맥講脈을 전수傳受받았습니다.

아래의 글은 송광사 강원 강주이신 현진玄珍스님의 전강傳講에 앞선 발원문發願文입니다.



미묘微妙하고 담담한 진리 터득하시고
 최고의 법 통달하신 법法 중의 왕이시여!
 그 어느 것도 가리울 수 없어
 비추지 못할 것 없는 실상반야實相般若여!
 금강보계 옷을 삼아 자각각타自覺覺他的
 방편方便 자유자재하신 청정 성현聖賢이시여!
 저희들은 숙세宿世의 선근善根으로 삼보에 귀의歸依하고
 출가出家하여 삼장三藏을 익혔으나 근기根機가
 하열下劣하여 세존의 감로법甘露法을 받아지님에
 마치 소경이나 귀머거리 같은 것이
 여의주如意珠 품은 걸인乞人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다행히 스승의 큰 은혜로
 부족하나마 눈을 떠 스승의 손에 있던 반야般若의 부채를
 오늘 저희에게 내려 주시니, 무명열뇌無明熱惱를
 만나더라도 청풍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감히 믿사옵니다.
 저희 제자들은 삼보와 사부대중이 증명하는 가운데
 진실한 발원을 올리나이다.
 억겁의 중생들이 미혹으로 인하여 탐애하고,
 샷된 견해로 무명에 물들어 육식六識은 망령되이
 죄를 짓고 고해에 빠져들었나이다.
 바라옵건대, 불보살님이 살피시어 고해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보리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옵소서.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이심전심以心傳心하는 가섭의
 미소를 터득하고 팔만법장 다문하여 아난의 총지總持를 얻으며,
 분별망상 그대로 문수사리文殊師利의
 지혜가 되고 행주좌와 일체행은 보현普賢의 만행萬行이
 되게 하소서.
 드나드는 문에서 감로의 법이 나오고 맛보는 모든 것
 제호醍醐의 맛있게 하며,
 세세생생 보리의 숲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화장세계에 노닐게 하여 마침내 밝고 밝은
 진리 꿰뚫지 못하는 것 없어 스쳐 지나가는 곳에
 진리의 향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환幻의 바다 유희함에 밝은 달은 중생 실어 나르는
 무저선無底船을 삼고, 부는 바람 돛 삼아 거친 생사의
 파도 저어가며, 팔풍 번뇌와 흑독한 난관을 만날 적마다
 자신의 주인공을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지금 저희 제자들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와 같이 발원하오니 일체중생이 수월도량에서
한량없는 불사 짓길 원하옵니다.
삼가 시방법계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증명하소서.
잠시 본원本願을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가피를 내리시어,
저희들의 해태懈怠와 교만驕慢 거두게 하소서.
형체 없는 저 허공 부서져 없어진다 하여도
금강 같은 저희 원력 끝없으리이다.
부처님 전에 머리 숙여 평등일심平等一心으로
간절히 바라옵나니,
모든 중생 일체종지一切種智 이루어 성불하여지이다.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나무영산회상불보살

정화庭花

번역 해설 · 현진玄珍 | 강주

雨後庭花連夜發
清香散入曉窓新
花應有意向人笑
滿院禪僧空度春

비온 뒤 뜰에선 꽃들이 밤새도록 피어나
은은한 향기 풍겨와 새벽 창 빛 새롭네.
저 꽃은 분명 의미를 담고 사람들을 향해 피었는데,
방안에 가득 앉아있는 선승은 허송세월만 하는구나.

-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

묵묵히 우리들 가까이 있는 저 자연.
언제나 자신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거쳐야 할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
그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순리에 따르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봄에는 새싹과 꽃으로, 여름에는 울창한 숲으로,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겨울에는 미련없이 떨구는 낙엽으로...
내면을 관조觀照하는 눈으로 밖을 한 번 바라보라.
모든 것이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몰아쉬는 숨을 잠시 가다듬고 피어나는 저 꽃을 향해 시선을 던져보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가피

승석僧奭 | 강사

봄바람이 깨우고
가을바람이 깨우고
여름바람이 깨우고
겨울바람이 깨우고
그렇게 애타게 깨웠소.
十年 二十年 三十年 四十年을
깨웠소.
부끄러워 마오.
바람은 당신 곁에서 끝까지 깨웠소.

승석僧奭스님은 현재 사교반 강의를 맡고 계신 강사스님입니다.

송광사 강원을 졸업하신 동문으로 강원스님들에게는 도반처럼 편안하고 사형처럼 따뜻한 분입니다. 스님의 나직한 음성 속에 전해오는 세심한 강의는 조계산 물소리처럼 항상 후학들의 가슴속에 차분하게 젖어듭니다. 송광사 강원과 맺어온 지난 8년의 세월만큼이나 달 빛 아래 소나무 그림자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후배스님들에게

진관眞觀 - 13회 졸업(직지사 중암총무)

“비구는 길을 떠날 때 그곳의 모든 인연을 잊고 떠난다. 가서 학인의 본분에만 전념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송광사 강원에 방부를 넣으러 떠날 때 은사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든 주인이 되라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뜻과 함께 혹여 이런 저런 인연에 꼬달려 본분사를 소홀히 할 것 같은 여린 저의 마음을 경계하기 위한 어른의 배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사를 떠난 지 1년여 다시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며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금 제가 송광사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보조스님의 감로탑, 율원가는 길, 하얀 감자꽃 핀 밭, 서점 앞 빨간 단풍 등이 어찌 아니 그림겠습니까마는 현재의 삶이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 강원생활보다 못하니 더욱 생각나나 봅니다.

저는 요즘 직지사 중암에서 어른 스님 시봉을 하면서 강당에서 소홀히 했던 공부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고요해 좋긴 하지만 나태해지기 쉽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삶이라 강원 생활이 그림기만 합니다.

송광사 4년의 삶. 비록 스님들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저에게 그리움으로서가 아닌 승려생활의 기준으로 삶의 일과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참 나는 복이 있구나’ 하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이제 졸업생이 되어 옛 시절을 돌이켜보며 비록 모범이 되어 살지는 못했지만 학인의 삶 동안 느꼈었고 현재도 저의 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후배 스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분의 동문으로서 머트러웠던 삶을 참회합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출가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부끄러움입니다. 습관에 의해 무심히 흘러 보낸 시간들을 돌이키며 하나하나 정리 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갈수록 스스로에게만 관대해

지는 저를 보며 '남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겐 많이 부끄러워하자' 라고 자꾸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하기에 송광사의 삶은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요속에 흘러가는 사풍寺風이 그러하였고 방장스님의 울력소리와 구암 선덕스님의 발우공양, 동당스님의 호통소리 등 가까이서 접하는 어른스님들의 삶의 모습과 강당의 대소사에서 도반들의 마음을 보면서 수행자로서 마음가짐과 모든 일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짐을 느끼며, 내 아만我慢에 고개를 떨군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자신의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면 어른스님들과 함께 하는 삶과 도반스님과의 대중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는 '경험보다 더 큰 집착은 없다' 입니다.

대중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내 속에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욕망의 삶이 고됨임을 느끼고 무상과 무아의 삶을 살고자 출가를 하였는데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군대경험, 사회경험들을 보며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과거의 삶속에서 느낀 위계와 업무처리의 습관들이 현재의 저를 자꾸만 편리함으로만 이끄는 것을 보며 경험처럼 나를 집착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없구나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코 아직은 어른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중물도 덜 들고 공이나 무상의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불쑥불쑥 어른스님들의 결정이나 대중의 합의에 반기를 드는 제 마음은 범복 입은 속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즘 학인들은 사회경험이 많아 대화하기가 힘들어 무조건 반대부터 해야 할 처지야' 하시던 전 강주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대중생활을 하시면서 혹여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모순을 보시게 되면 스님에게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또한 합리적이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되돌아보시고 공명심 또한 덕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는 '현재가 최선이다' 입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정해진 4년이라는 시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살았던 일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며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수행의 정도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과들 속에 습관처럼 살다가 혹여 마음상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강원이나 선원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만 키웠습니다. 특히 강원시절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하면, 선원에만 가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저도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와서 좌차가 막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행에서 훌륭한 스승과 도반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고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종단의 정책상 이젠 4년을 꼭 졸업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혹여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 '계획할 바가 끊어진 순간이 비로소 화두를 들 수 있을 때' 라고 말한 옛 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등산화에 아이젠까지 하고 오르는 황악산은 맨 처음 오르려 했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군데군데 짐승들의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가끔씩 '스님 송광사 졸업한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처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쉽게 변하는 것은 없구나 하며 슬프지마는 우리 종단에서 송광사 강원이 하나의 색깔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며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범복에 행전 차고 공을 차는 것이 화제가 되는 요즘, 조금은 힘들고 어색하지만 어느 광고문구의 '남들이 다 "예"를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처럼 현실의 변화를 따라 가기에 급급한 세태 속에서 조금은 어눌하고 느린 듯 하지만 나 보다는 대중을 위하고, 변화보다는 전통 속에서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방장스님이하 모든 어른스님들과 강원대중스님들께 감사 올리며 여러분의 동문임이 어색하지 않는 스님이 되고자 정진하겠습니다.

기획연재

9世 祖師
담당국사 湛堂國師



국사의 비문도 인멸된 지 오래여서 자세한 행장行狀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사에 대한 전설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므로 이를 미루어 국사의 모습을 알아볼 도리밖에 없다.

전설에 의하면 국사는 본시 금나라(金國)태자로서 사문沙門이 되어 고려에 와서 조계산의 제9세 법주가 되었다 한다. 일설에는

“금나라 신 곤전坤殿이 병환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갖은 약을 다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때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께서 정중定中에서 이를 관찰하시고 출정하신 후 즉시 신통력으로 공중을 날아 금나라에 다다르셔서 곤전의 병석에 방문하사 약시藥施와 법시法施를 겸하게 베푸시니 곤전의 병환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

이에 온 나라가 국사의 도력에 감읍感泣하여 찬탄해 마지 않았으며, 국사가 귀국하려 하자 황제께서는 셋째 왕자를 딸려보내 출가시키니 이 분이 곧 담당국사이다.”

또 한가지 전설에 의하면,

“금나라 황제 장종章宗이 불법佛法을 시험하여 만일 영험이 없을 적에는 불교를 사태沙汰시키려 하였는데 이에 온 나라의 불승들이 장차 사태沙汰가 올까하여 모두 전전 궁궁하고 있었는데 이를 고려의 보조국사께서 정중定中에서 살피시고는 곧 신력神力으로 허공을 날아 금나라에 이르러 시험장에 하강하시니 제천諸天이 꽃비를 내려서 화불花佛의 래의來儀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이에 천자께서 가찬嘉讚을 마지 아니하여 스승의 예로 영접하시고 극진히 예우하시더니 국사가 귀국할 즈음에 제3왕자를 제자로 딸려 보내시고 불사에 필요한 많은 재물과 즈물汁物을 배편으로 실려 보냈다.”

또 담당국사가 고려에 온 뒤의 일화 두 가지가 전해 온다.

“담당국사가 송광사의 삼일암三日庵에서 암자 곁의 레천醴泉을 마시면서 선정을 닦아 사흘만에 견성하였으므로 암자 이름을 삼일암이라 하고 샘 이름도 삼일영천三日靈泉이라 한다.”

또 한가지는 “담당국사가 천자암天子庵을 창건하였

으므로 암자 이름을 천자암이라 하였고 암자 경내에 두 그루의 향나무가 있어 어른의 두 아람이 넘는데 이 쌍향수雙香樹는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금나라에서 지팡이로 짚고 온 전단 향나무를 꺾었더니 싹이 나서 이렇게 크게 자랐다.”고 하니, 이 향나무는 현재 우람하게 서 있는데 어느 누가 흔들어도 꼭 그만큼 흔들리므로 지팡이를 꺾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상의 설화가 비록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사가 금나라 사람이며 왕자였다는 것, 그리고 삼일암에서 정진했고 천자암을 창건하였다는 것 등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허구적인 점은 보조국사와의 관계이다. 제1세 법주이신 보조국사와 제9세 법주인 담당국사와의 연대는 적어도 40~50년은 간격이 있을 터인데 함께 살으신 것으로 된 것과 보조국사가 금나라에 가신 사실이 없는데도 금나라에 왕래하신 것으로 묘사된 점 등이다.

10世 祖師
혜감국사 慧鑑國師 만항萬恒



스님의 휘는 만항萬恒이고 속성은 박씨朴氏이며 아버지는 경승景升이니 진사進士 벼슬을 했고, 어머니는 정씨鄭氏니 고종高宗 36년 (1249) 기유己酉 8월 6일에 웅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정씨가 한 꿈을 얻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취막翠幕속의 옥동자가 문득 품안으로 뛰어드는 기이한 조짐을 감득感得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명을 막아幕兒라고 하였던 것이다.

스님의 가문은 유가儒家의 집안이어서 본시 영특한 스님은 어려서부터 학업에 힘쓰더니 차츰 세속을 버릴 마음을 굳히다가 원종3년 열네살의 나이에 원오국사에게 득도得道하였다.

출가하여서도 내전內典에 마음을 쏟아 일대시교一大時教를 두루 이수한 후 구산선九山選에 나아가 괴과魁科를 마치시고는 석장錫杖을 떨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하안거를 마쳤다.

스님은 다시 남방 지리산으로 내려와서 용맹정진하는데 배가 고파도 거둬 먹지 않고 겨울 추위가 매섭되 솜옷을 입지 않았으며 몸이 피곤하여도 자리에 눕지 않고 장좌불와長坐不臥로서 여러 해를 지내며 이름과 지취를 감추었지만 오히려 스님과 이름은 널리 나타났다.

나라에서도 스님의 도풍을 들으시고 보양普陽땅의 삼장사三藏寺에 주지하기를 명하시고 스승 원오국사께서도 은근히 권유하시므로 마지 못하여 입원入院하여 개당開堂 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로 랑월郎月·운흥雲興·선원禪源·등사等社 법주法主를 역임하였는데 매양 7백여 남자를 대상으로 내전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흰잡한 잡담에는 귀먹은 척 하고 매사에 어두운 척 하되 마음은 늘 맑은 하늘과 같았다.

이에 스님의 도예道譽는 날로 널리 퍼져서 사대부로서 구의 毘의 예로써 사내에 들어온 이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스님이 주석한 절의 산문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국의 오리吳異 몽산夢山이 스님의 시문을 보고 탄상歎賞을 마지 않으시며 시 10수首를 화답하고 스님에게 고담古潭이라는 호를 지어 바치기도 하였다.

충선왕忠宣王 5년(스님의 나이 65세) 12월 11일에

영안궁永安宮에서 이틀동안 2천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2천 등을 켜고 선교의 고승을 뽑아 강론토록 했는데 이에 스님에게 특강을 청하니 스님은 법회장에 이르러 사자후를 하니 봉갈棒喙에 선풍旋風이 일고 변설辯舌에 선음仙音이 떨치는 것이었다.

이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스님의 절로 돌아갈 적에 어교御轎를 보내셨으며 이튿날에도 영안궁에서 반승점등飯僧點燈을 계속하였는데 왕은 스님과 함께 련輦을 타고 연복사演福寺에 행행幸行, 8일 동안 점등點燈하였다.

이 법회에 스님이 성연盛宴을 베푸시니 왕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다. 이 성대한 법회에 왕래하는 동안 왕은 스님과 함께 련輦에 오르고 공양함에 있어 찬?을 친히 올리셨다.

법회가 끝나자 왕은 스님에게 법호를 더하여 별전종주중속조등別傳宗主重續祖燈 묘명존자妙明尊者라 하시고 가사袈裟·의군衣裙·모帽·말襪 및 은폐銀幣 50일(鎰)로써 전별하셨는데 스님은 산사로 돌아온 후에 모두 사중의 상주常住에 부치도록 분부를 내리셨다.

충숙왕忠肅王 원년 정월 2일에는 왕께서 은자원銀字院으로 스님을 방문하셨으며 초이렛날에는 상왕上王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로 행차하시는 길에 연경궁延慶宮의 만승회萬僧會에 들리셔서 백금 백삼십근을 스님에게 하사하시었다.

충숙왕忠肅王 6년 7월에 삼장사三藏寺에 주석하고 계시던 스님은 처음으로 미질을 보이시니 대중들은 모두 근심에 차는 것이었다. 8월 18일에 이르러 스님은 머리를 깎으시고 목욕하신 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더니 나라에 유서를 쓰시고 밤이 깊자 시자를 불러 법고를 울리게 하신 후 가사를 입으시고 선상禪床에 앉으사 계송偈頌을 읊어 고별하시니,

확청오온廓清五蘊
진조무궁盡照無窮
생시출몰生死出沒
월전공중月轉空中
오금하각吾今下脚
수변현종誰辨玄宗

고이제자告爾弟子
막만문공莫 空

오온을 확연히 밝히니
참으로 비춤이 무궁하도다
죽고 태어나며 출몰함은
달이 공중에 굴름이로다.
내 이제 떠나가면
그 뒤가 진리를 분별 하겠는가?
너희 등 제자에게 고하노니
부질없이 공을 더듬지 말라.

스님의 이같은 고별의 장면을 지켜보던 경호景浩라
는 선객이 큰소리로 여쭙기를,
“큰스님께서 이제 고별하시니 장차 어디로 가시렵
니까?”
스님은 다시 계송으로써 답하였다.

하처불상봉何處不相逢
도하불용벌渡河不用筏

어느 곳에서 상봉하지 않으랴?
강을 건넌에는 뗏목을 쓰지 않노라.

이 계송을 낭랑한 음성으로 길게 읊으시며 무릎을
쳐 박자를 맞추시더니 두 손을 마주 잡고 빙그레 웃음
을 띠신 채 엄연奄然히 대적삼매大寂三昧에 드시는 것
이었다. 스님의 세속 수명은 71세셨고 법랍은 58하夏
이셨으며 문도들이 다비茶毘를 모신 뒤 삼장사三藏寺
의 양방良方언덕에 탑을 세웠다.

왕께서 부보訃報를 들으시고 매우 슬퍼하시고 시호
諡號를 혜감국사慧鑑國事라 하시고 탑액塔額을 광조
廣照라 내리셨다. 스님의 비문은 삼장사三藏寺의 법도
法徒들이 주관하여 삼장사三藏寺 경내에 세웠는데 스
님께서 조계산 수선사의 주지로 부임하신 사실을 신
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그 비제碑題에는
'조계산祖溪山 수선사修禪寺 제십세第十世' 라고 분명
히 기록하였으며 또 그 명에 '조계기임祖溪其任' 이라

하여 조계산으로 그 소임을 삼았음을 밝혔으므로 스
님이 조계산 수선사의 제십세第十世 법주法主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에도

“충선왕忠宣王 오년五年 계축癸丑 십이월十二月 경
오庚午 내지乃至 소송광사召松廣寺 승僧 만항부회萬
恒赴會

충선왕忠宣王 5년 계축 12월 경오에 내지 송광사
스님 만항을 불러 법회에 다다르게 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음을 보아 스님께서 충선왕忠宣王
·충숙왕忠肅王의 시기에 수선사의 주지로 계셨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법계法系는 다음과 같다.

혜감만항慧鑑萬恒 □□소지小止
□□경호景浩 등 칠七백여명

스님께서 시적示寂하실 적에 대방군帶方郡에 사는
백태白太라는 사람이 한 꿈을 꾸었는데 스님께서 취막
翠幕에 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꿈이 너무도 괴이한 지라 이튿날 스님이 계신 삼장
사三藏寺로 달려 갔더니 과연 스님께서 이미 서거하셨
더라고 한다.

삭발이야기

도감道岬 | 치문

2003년 1월 1일... 새해의 첫날
아침부터 삭발 준비로 분주하게
시작됐다. 송광사로 입산한 후,
출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첫 관문인 삭발식을 치뤘던 날...

‘부처님의 법 안에서 내 삶의
이정표를 찾겠노라!’ 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날...

바로 그 날도 두해 전의 새해 첫날
아침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삭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01년 1월 1일, 송광사 행자실...
먼저 입방한 상행자님들의
참회진언 정진속에, 길게 자란
머리는 사각사각 한켠씩 한켠씩
정리되어 갔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웠는지...
울컥 하더니만

이내 눈앞이 흐려지고 말았다.
한 움큼씩 잘려나간 무명초에,
따가운 비눗물에, 연신 그칠 줄
모르는 눈물에, 이어지는
참회진언까지...

모든 것들이 온통 뒤섞여 범벅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행자시절의
삭목일(삭발목욕일)은 짬내서
삭발도 하고 삭발떡도 만들어서
전 사중에 나누느라고 무척
바빴다. 그렇게 분주했던

행자시절을 마치고 스님이
되어서 맞이했던 삭목일...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다. 강원 학인 스님들
전체가 참여하는 대중행사일
뿐만 아니라, 삭발 염의한
출가 수행자들만의 고유하고도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실수는 참회로 직결되었다.
신경을 써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종종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사연으로
참회가 떨어지곤 했는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이렇다.
가을산철 마지막 삭목일에는
뜨거운 물이 부족해서 수두
소임자 스님들이 참회를 받았고,
동안거 첫 삭목일은 큰방 스님들이
바닥 비닐을 잘못 깔아서 참회를
받았다.

연속되는 참회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동안거 두 번째 삭목일이
다가왔다. 전날부터 쏟아지는
윗반스님들의 격려와 이번에는
참회 없이 보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부터 일은 순탄하게 잘
진행 되었다. 따듯한 물도
충분했고, 비닐도 길쭉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그 밖에 세세한
부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마침내 삭발이 시작 되었다.
대교반 스님들의 삭발이 무사히
끝났고, 사교반 스님들의 삭발도
무사히 끝났다.

이제 사집반 스님들만 마치면
우리반(치문반)은 문제 될게
없었다. 별 문제 없어 보였기에



우리는 서서히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수두 스님! 사집반 스님들 모셔 오세요.”
 “네!”
 가볍게 오가는 대화였다.
 이윽고, 사집반 지대방 앞에 다다른 D스님.
 똑! 똑! 똑!
 “치문반 수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다음은 정해진 대로
 “삭발 준비 다 됐습니다. 삭발하러 오십시오.”라고 보고하면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결정타를 날린 D스님의 다음말은 이랬다.
 “사집반 스님들! 머리칠 준비 다 됐습니다. 머리치러 나오십시오.”
 (아뿔싸! 머리를 치다니??? 여기를 동네 미장원으로 알았나?)
 우리는 이번에도 싸늘한 삭목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날밤 공사 시간에 고개 떨구고 있던 D스님의 모습은 왜 그리 가련했는지...
 비록 이처럼 아픈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삭발 후 환해진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를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좋다.
 보람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삭목일마다 첫 삭발식 때의 다짐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긴장감 속에서 삭목일을 준비해야 하는 치문반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나의 어설플 삭발솜씨에 상처입었던 여러 스님들께 머리 조아려 사죄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옴 살바뫼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치문 겨울나기

인법印法 | 치문

출가出家하는 일이 어찌 그리 작은 일이라...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하였는데 남들보다 조금은 일찍 출가出家하여 홀륭하신 은사스님과 인연因緣맺고 바른 불법佛法 만나 좋은 도량에서 정진精進하고 있으니 어찌 큰 복福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작년 이맘때 은사스님을 모시고 제주도 도량에서 백일 묵언기도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선원으로 갈까, 강원으로 갈까 고민을 하면서 “관세음 보살”도 목이 쉬도록 불러보고 스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했다.
 결국 은사스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만 내 나름대로 남은 기도기간 동안 부단히 관세음 보살님께 ‘아무 마장없이 건강하게 정진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라고 일심발원一心發願을 했었다.
 그렇게 백일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송광사 강원예 입방하여 생활한 지난 1년은 무척 힘든 한해였다.
 도반들과도 많이 다투고 쉴틈없는 소임과 운력 그리고

난자 투성이던 치문책...
 도반들과 다툼 후에 내 화를
 못이기에 되면 홀로 산길을
 걷기도 하고 예불시간 때
 “지심귀명례” 소리에 맞춰 눈물을
 글썽일때도 여러번 이었다.
 습하고 덥고 전투적 특성을 지닌
 모기로 유명한 송광사의 여름
 하안거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치문 동안거...
 남들은 안거를 무사히 나기 위해
 절도 하고 주력도 하지만 난
 이곳 송광사 강원에 와
 선시禪詩를 통하여 기도와
 마음의 양식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여기서 잠시 선시 한 수를...

진로형탈사비상塵勞迥脫事非常
 하니
 인간세상의 모든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도
 긴과승두주일장繫把 瑣頭做一場
 이어다
 굳게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지어볼 지어다
 약비일번한철골若非一番寒徹骨
 인들
 만약 한번 뼈에 사무치는 그
 추위가 아니었다면
 쟁득매화박비향爭得梅花撲鼻香
 이리오
 어찌 코끝을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랴

강주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시詩인데 너무 좋아서
 힘들때마다 되새겨 보곤 한다.

한달 반이면 한 학년 올라간다.
 송광사의 겨울나기가 따뜻한
 남쪽나라의 겨울보다 춥고
 힘들지만 나에겐 언제나 부처님
 뻘이 있다.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꾸준히 정진精進해
 나갈 것이다.
 치문반 스님 모두다 건강하게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전의 시詩를 적었다.
 끝으로 얼마 전 눈이 내렸던 내
 마음속 풍경을 한 수의 시로써
 회향하려 한다.

허공분쇄우잡화虛空粉碎雨雜花
 한데
 형체 없는 허공이 부서져 온갖
 꽃 모양을 떨구는데
 수지차시일편심誰知此時一片心
 을....
 누가 알까?... 이 때에 조각조각
 떨어지는 내 마음을...

두손모아 합장합니다.



아! 치문縉門

보순菩淳 | 치문

긴장과 어설피름속에서 시작한
 치문반 생활이 어느덧 동안거의
 절반을 넘어서 종착점이
 몇 발짝 남지 않았다. 4부작
 소설의 1부가 끝나고 있다고나
 할까. 2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1부가 끝나가는 아쉬움이 더
 커야 될성 싶은데... 마치 이등병이
 일병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의 심정이랄까. 하여튼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한달 보름여일 남았지만 별탈없이
 치문반 1년을 회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한문,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치문縉門을 들고 난자와 씨름하고,
 난자를 모두 찾아 놓고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느라 골머리를
 앓아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치문縉門. 너와 작별의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앞에 광명이
 비추는 것 같구나.

나는 너를 두고 가지만 너는
 남아서 후학들의 어깨에 짐이
 될 지어다.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라도 치문과 싸워서

이겨보고 싶다.
힘이 닿는데까지라도 열심히
해보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받아 쓰는 것은 많고 시주의
은혜는 두터워 지는데
어찌 시주물만 축내며
어찌 미적미적 시간만
보내겠는가?
시광時光이 엄몰淹沒하고
세월歲月이 차타蹉跎어늘
수용受用이 은번殷繁하고
시리농후施利濃厚한데
하내소진시물何乃消盡施物하며
기가천연과시豈可遷延過時리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콩나물 시루보다 비좁은
지대방에서 부대끼며 서로를
탁마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도반 스님들께도 감사해 해야지.

생아자生我者는 부모父母나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나
성아자成我子는 붕우朋友라.
나를 성숙케하는 이는 도반이라
했으니까.

시님들! 성불하이소.

From 초발심자경문 To 치문경훈

정달正達 | 치문

옛그제 '부초심지인夫初心之人은
수원리악우須遠離惡友하고' 를
흥얼 거렸는데 지금은 눈만 뜨면
'부업계수신夫業繫受身은
미면형루未免形累라' 고 읊조리고
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어엿하게
법랍 3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내게 출가 수행인으로서의
자세 및 위의를 마음속에
일깨워 주신 원효스님, 보조스님,
은사스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처음 출가하여 행자시절에 읽었던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았다.
옛 조사스님들의 사당과 뛰어난
문장에 찬탄하면서 환희심을 갖고
틈만 나면 행자실이건 후원이건
큰소리로 독송을 하곤 했다.
도반 행자님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많이 됐던 지 나에게는
얘기를 못하고(행자반장이었기
때문임) 찰중스님에게 부탁하여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3일간
대적광전에서 참회를 하고
그 후로는 설법전 지하에서 목탁을
치면서 3~4개월 독송하니 신심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잡념이 생기지
않아서 좋았다.
사미계를 받고서 만일염불회
萬日念佛會의 서원과 원력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유서깊은 통도사 백련정사
白蓮精舍에서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은사스님에게서
초발심 강의를 듣고 은사스님의
따뜻한 정과 함께 문장의 맛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아침
도량석도 초발심자경문으로
시작하여 금강경과 5~6번씩
번갈아 독송하니 그때는 정말
부처되는 날도 얼마 안남은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었다.
경도 쉬워 보였고 한문도 쉬워
보여서 내가 상근기인줄 단단히
착각하였다.
방부를 들이고 나니 치문경훈책이
줘어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난자를 찾고 사기를 보고
석사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걸리는
문장이 한둘이 아니고 모르는
난자가 한두 자가 아니었다.
초발심자경문의 자신감은
간데없고 퇴굴심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하안거를 보내면서 난자가
줄어들었고 석사도 그럭저럭
하였지만 옛 조사님들의 주옥같은
문장과 사상은 보면 볼수록 알 듯
모를 듯하여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큰소리로 독송하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천강유수천강월千江流水千江月
혜월심慧月心.'

그러다 보니 벌써 동안거의 반결제 살림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도 치문경훈의 미로를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않은 치문반 생활을 여러 조사스님들의 주옥같은 문장과 간절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마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데 아는 것은 아는데로 집착하지 말고 여법하게 겨울방학 때는 다시 한번 조용히 치문을 독송하고 싶다.

그리고 은사스님을 모시고 다시한번 치문을 배우고 싶다. 끝으로 남곡회신법사 자경록서문 끝문장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친다.

고인古人이 운云

백년영조百年影徂나

천재심재千載心在라 하니

실망實望 천재지후千載之後에

지여심지知余心之 소재언所在焉

하노라.

백년의 그림자는 갔으나

천재千載에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천년 뒤에 내 마음 있는곳을

알기 바란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수희찬탄隨喜讚嘆

대정大定 | 사집

며칠 전 영남불교대학에서 졸업여행 차 내방하신 신도님과 함께 불일암에 다녀왔습니다. 울원을 지날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발이 불일암에 도착할 무렵부터는 제법 굵어져 있었습니다. 불일암 입구에서 참배하신 분들을 묵언하게 할 요량으로, 얘기하며 산행하면 눈 내리는 귀중한 소리를 놓치게 되니 묵언하자고 제안하고 모두들 밤손님 마냥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범정스님께서 쓰셨다는 나무의자와 불일암을 둘러보고 진감국사 사리탑도 참배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묵언해 주신 덕분에 탑전에 도착할 때 까지 묵언을 하였으며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화엄경에 수희찬탄隨喜讚嘆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온 누리에 계신 불보살님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찬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티벳스님으로서 한국에서 공부 중이신 초펠스님께서 쓰신 책에서 수희찬탄에 관한 부분을 보았는데 누군가가 공덕을 지을 때 그 공덕을 함께 기뻐하기만 해도

자신에게 그 만큼의 공덕이 생긴다는 말씀을 보고는 시기와 질투로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방편으로 수희찬탄이 제일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도반이 자신의 공부를 절반만 시켜주냐고 묻자 부처님께서 모든 공부를 도반이 시켜준다고 답하셨듯이, 지난 두 해 동안 저를 탁마해주고 함께 공부한 도반스님들 한 분 한 분을 찬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도반스님과 함께 이 글을 다시 읽으며 어찌면 강원 4년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도반스님들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진봉스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공양시간과 간경시간에 빠짐없이 죽비를 치고, 아랫반 스님들과 같은 반 스님들을 시봉하느라 다들 힘들어하는 사집반장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반스님들 가운데 노장임에도 간경에 열심이신 모습이 여러 도반스님들께 귀감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염불경험이 많으셔서 점안식이나 어려운 염불이 있으시면 모두들 진봉스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올 설날에는 치문, 사집반장스님 대 사교반장, 찰중스님의 배드민턴 시합도 있습니다. 그때 진봉스님께서 진면목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해안스님은 영국에서 오신

스님입니다. 선불교에 매료되어 선불교가 살아있는 한국에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전공하시고 불어와 중국어도 잘하셔서 사중에 외국인 안내소임이 있을 때면 방장스님까지 해안스님을 찾으실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농담도 잘하셔서 가끔씩 도반스님들의 배꼽을 잡게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하신 탓에 겨울이면 감기에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하루빨리 공부에 득력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 되시기를 발원해 봅니다.

홍전스님은 야무진 인상에 책임감이 무척 강한 도반스님입니다. 못 만드는 물건이 없을 만큼 손재주가 뛰어나 지대방이나 강원에서 만들거나 수리할 물건이 있으면 꼭 홍전스님을 찾습니다. 여담으로 홍전스님의 사물함에는 나무 깎는 끌과 작은 톱이 있습니다. 마치 제 사물함에는 컴퓨터 부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성스님은 걸모습과 달리 도반스님을 잘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며, 경험이 많아서 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일을 크게 벌인다는 말을 듣는 저로서는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서래스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동진출가한 스님입니다. 얼굴이 조금 검은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지 않은 탓에 치문반 때 처음 본 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스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래스님은 복치는 솜씨가 일품이실 뿐만 아니라 종고루장이기도 하십니다. 며칠만 종고루 소임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을 수 있음은 본받을 일입니다. 게다가 작년 전국승가연합대회에서 연성스님과 함께 종고대회에서 우승하여 송광사 강원이 연속 삼연승하게 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법운스님은 조용한 가운데에도 뭐든지 잘하시고 해박하셔서 많은 도반스님들이 신뢰하는 스님입니다. 얼마 전에 생긴 서예특강에서도 붓글씨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더니 배드민턴 연습시합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희심 날 만큼 염불도 잘하고 인정이 많으셔서 도반스님들이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곤 합니다.

해진스님은 한 번 들은 것은 뭐든지 기억할 만큼 우리 반 스님 중에 제일 총명한 분입니다. 정혜사 편집장이기도 하며, 사리에 밝아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면 시원하게 결론을 잘 내주곤 합니다. 또한 밝은 성격으로 도반스님을 즐겁게 해주어 반에서 윤희유 역할을

해주는 꼭 필요한 스님입니다.

남전스님은 말없이 차분한 성격이지만 도반스님이 경전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대답해 줄 만큼 아는 것이 많은 스님입니다. 아는 것이 많음에도 감출 줄 알며 항상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찬탄이 절로 나오는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도반스님입니다.

일행스님은 방장스님 시자소임을 보면서 많은 울력에도 싫은 내색 없이 꾸준히 잘 사시는 모습에 오히려 도반스님들이 조금만 울력하라고 말할 정도로 도반스님들의 인정을 받는 스님입니다.

지명스님은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심으로 극복하려 노력하시는 스님입니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못하시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먼저 일어나 자명종소리를 흥내 내어 도반스님을 즐겁게 깨워주시곤 하셨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해명스님은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책임감 있으시고 평소에 자기관리를 잘하시어 아픈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한 스님 중의 한 분입니다. 저와 회계소임 인수인계 때 통장에 있는 십 원이하를 처리하는 문제로 언쟁을 할 만큼 공과 사가 분명하십니다. 제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본공스님은 어린이법회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심에도 어린이법회를 잘 이끌고 계시며, 수업시간 때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백스님은 쌍계사 강원에서 오신 스님인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능엄신주를 즐거이 암송하시며 조용히 사시는 스님입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못해 약을 들고 계십니다. 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합니다.

용은스님은 올해 강원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스님이 아닐까 합니다. 전산소임을 맡으면서 컴퓨터를 7대에서 14대로 늘이고, 전산실 옆방 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히는 등 전산실 모습을 새롭게 바꾸신 원력 있으신 스님입니다. 사집강사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용은스님의 원력과 노고에 보답하고 후배스님들을 위해서라도 전산실을 잘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관스님은 화엄사 강원에서 오신 스님입니다. 염불소리가 일품이시며, 도반스님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음양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공부에도 열심이며 강사스님께서 외우라고 하신 구절을 지대방 칠판에 써놓곤 하여 모든 도반스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지금은 허리를 다치셔서 몸이 불편하십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여 함께 산행하면 좋겠습니다.

수원스님은 맹장이 터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이겨보시려고 노력하셨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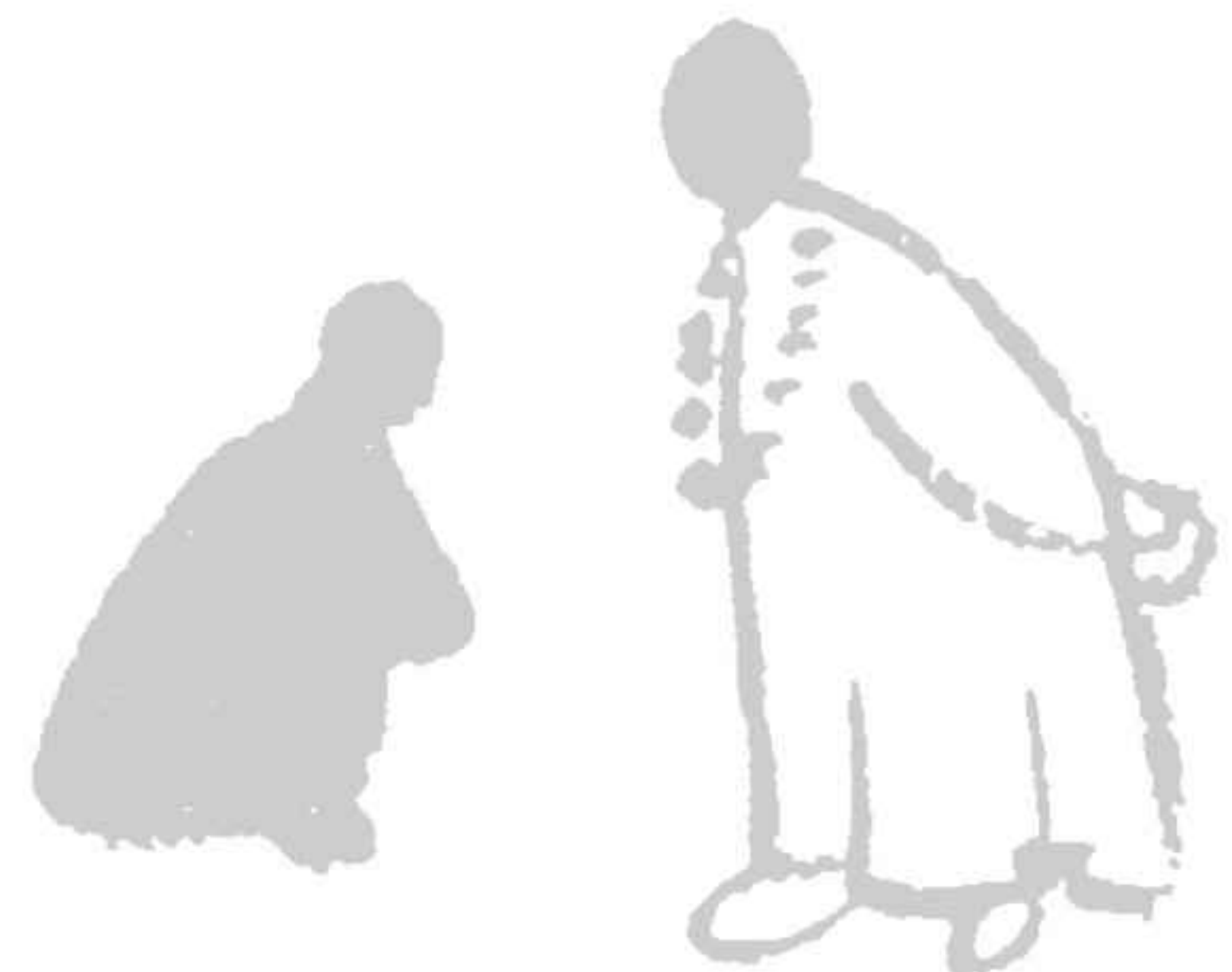
신심제일인 스님입니다. 비록 상태가 좋지 못해 맹장수술을 했지만 수원스님의 신심은 도반스님들 모두 인정합니다. 요즘은 수술후유증으로 요양중이셔서 대중생활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지만 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도반스님들의 시는 모습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반스님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고 보기도 싫은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도반스님의 단점이 아니라 제 단점인 탓에 더욱 싫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럴수록 더욱 노력해봅니다.

구름 뒤에는 항상 밝은 해가 있듯이 우리의 업장 뒤에는 찬란한 불성이 빛나고 있음을 하루 하루 되새기며 도반스님이 제 선지식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반스님들께 목숨다해 귀의하오며, 도반스님 모두 금생에 부처님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서울 칠보사 조실 석주 큰스님



동지 선달, 겨울 바람이 매섭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누비 동방을 추스르며 걸음을 옮긴다.
삼청공원 옆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골목길...
용기종기 모인 지붕들 사이로 선교원 건물이 솟아있고
담장을 마주하여 고즈넉한 법당 처마가 보인다.
산사를 옮겨 놓은 듯한 아담한 도량...
'큰법당' 편액에는 훈훈한 자비의 손길이 느껴지고
앞마당에 우람하게 선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큰스님의 법향처럼 때 이른 봄꽃 향기를 발한다.

요즈음의 근황과 하루 일과는 어떠신지요. 근황은 뭐여 글씨 그냥 지내는 거 살아가는 거지. 매일 삼시예불 하고 잠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

출가를 15세 때 남전스님을 은사로 하셨다는데 출가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오.

동기는 뭐 별게 없어요.

내 고향이 경북 안동이야. 거기서 소장사가 서울에 와서 소를 판단 말이야. 예전에 잠실인가서 소장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를 사와서 고향에 내려와서는 판단 말이야. 시골서 서울 오는데 닷새 걸려 그렇게 소장사를 따라서 하루 백리씩 오백리를 찾아왔지. 본래 학교공부를 배우러 올라왔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서울에 가자구 해서 계획을 했는데 한 겨울이 지나니까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그래서 갈데두 없구 마침 선학원에 아는 인연이 있어서 그리로 갔지.

본래 집에서두 형제가 다섯 형제인데 한 명은 절에 보내려구 했어요. 어릴 적에는 한학두 배우구 글방에 다니기두 했어요. 그래서 서당을 마치고 신학문을 배우려구 서울에 왔다가 뜻대루 안되구 해서 선학원으로 가게 된거지. 필방을 하는 친척아저씨의 심부름으로 선학원에 자주 다니면서 은사스님을 뵈게 되었지요. 선학원에서 스님을 시봉하면서 한 6년을 살았지 살다가 염증두 나구 그래서 범어사루 갔어. 거기서 계를 받구 그랬지.

은사스님이신 남전스님께서 수계 당시 써주신 편지가 있으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계는 받지두 앓구 6년을 있다가 범어사를 갔는데 강원 생활을 하려면 승적이 있어야 한다구 해요. 그래서 편지를 썼지. 그랬더니 편지를 내려 주셨어요. 이거야 그 편지가 여기봐.

작죄지념(作罪之念)이 무즉(無則) 죄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 승적(僧籍)이 하용(何用)야... 승적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거야. 차념유즉(此念有則) 불가불위적야(不可不爲籍也)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불가불 승적을 해야 한다. 오이몰차사고(吾已沒此事故)로 나는 이런 일이 없는 때문에 부지기법식(不知其法式)이라 승적하구 그런 법식을 모른다. 단수여언(但隨汝言)이나 다만 네 뜻을 따를 뿐이나 내금기종교자(乃今其宗教者)들이 개귀어형식이지(皆歸於形式)而止라 모두 형식에 그친다 사실 승적같은 거두 형식이지 중노릇하는데 무슨 형식이 있냐 이거야 여하용오언(汝何用吾言)야 내말이 무슨 필요있겠느냐 여시출가(如是出家)면 일일속귀친가(一日速歸親家) 유주신상(惟做身上)... 친가로 돌아가서 오직 신상에 부모 모시는 것이 옳다. 오냉질고(吾冷疾)로 냉병이 있어서.... 이 책은 스님이 돌



아가시기 전에 글씨를 받아놓고 있다가 내가 냈어. 돌아가신 분이 글씨가 좋아요. 지금은 글씨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었지요.

스님께서 공부하셨던 당시의 강원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 생활이 한 6년 걸렸어요. 지금처럼 치문반 사집반을 거쳐서 처음에는 초심을 배우고 치문을 배우고 사집 배우고 경을 보기 시작하지. 하루 8시간씩 죽비를 치고 경을 봐. 그리고 강통이란 게 있어요. 아침마다 그걸 빼가지고 발기와 중강을 뽑아서 논강을 해요. 논강 할 때 발기는 글을 새기구 새기다가 모르면은 그걸 중강이 새겨주지. 그러다가 중강두 모르고 그러면 모르는 건 교실에 들어가서 강주스님한테 물어서 배우고 그러지.

인원은 많을 때는 40명도 하고 적을 때는 20명도 하고 그랬지. 처음이니까 다른 생각없이 일단심으로 공부했어요. 능엄경을 볼 때는 하루에 두 석장을 정해서 여덟시간을 보거든. 죽비치고 똑같이 보고 아침에 논강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교실에 들어가구 거기서 해결되면 그냥 다음날 공부를 하구 나중에 화엄경 볼 때는 그렇게 많았어. 그때는 경 잘보는 이두 참 많았으니까.

선원에서 정진하실 때 근세의 선지식이신 방한암스님을 모셨고 선학원에는 민족운동가며 <조선불교유신론>의 저자이신 만해스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원 수

학 후의 이력과 두 스님을 모시던 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선학원에 오면 일을 시키고 그래. 그래서 스물 여섯 인가 강당에서 나와서 선학원에 있다가 노스님이 병환도 있어서 시봉하다가 스물여덟에 첫 철을 냈지. 선방에서 공부하던 시절은 그 뒤여 보통처럼

강통이란 게 있어요.

아침마다 그걸 빼가지고 발기와 중강을 뽑아서 논강을 해요. 논강 할때 발기는 글을 새기구 새기다가 모르면은 그걸 중강이 새겨주지. 그러다가 중강두 모르고 그러면 모르는 건 교실에 들어가서 강주스님한테 물어서 배우고 그러지.

했지 뭐. 한암스님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살았지. 그 때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한 20명 살았어. 예산이 없어서 월정사에서 지원을 못해줘. 그래 전국적으로 한암스님이 이름이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이 돈을 보내구 그랬지. 그래서 선원을 한암스님 개인이 유지하신거라. 시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시구 그랬지. 시은이 무섭다구. 산철에는 개인적으로 범망경두 가르쳐 주시구 그랬어. 그리고 선학원 와서는 일만 봤지 뭐.

만해스님은 그때두 역시 그러니까 민족운동하구 그랬지. 그때 우리나라에 신간회라구 있었는데 여성들은 근우회를 했구 남자들은 신간회를 했어. 그래서 신간회 신평지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활동하셨지. 각 종교 단체에서 일년에 한번씩 강연을 해서 거기에 나가시구

했어.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지. 그분은 특별해요, 불교계의 인물이야. 말씀두 잘하시구 <조선불교유신론>은 내가가기 전에 하신 거야. <유신>이라는 잡지를 했고 그건 난 잘 모르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내었지. <님의 침묵> 나왔을 때 서점두 다니구 스님 심부름을

좀 했지.

어려운시기 종단내에서 큰 소임을 맡아 주셨고, 정화운동에도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교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총무원장을 두 번 했지, 난 오래 하진 않았어. 정화 때가 아니고 그 뒤에 했지. 잠깐씩 두 번을 했구. 또 무슨 종단 정화한다구 좀 일했지 뭐. 잠깐씩 참여 한게 다지 뭐.

정화 때는 효봉스님, 청담스님, 운허스님, 금오스님, 동산스님 등이 주가 되셔서 하셨지. 그때는 아주 열렬하게 했지. 나는 그때 청담스님하고 둘이 선학원에 있었어. 둘이 있다가 나중에 그 양반이 조계사로 갔어.

그리고 나는 부산에 금정선원에 갔어. 거기 있으면서 조계종에는 자주 참여 못했어. 회의 있을 때는

가서 참여를 했지.

그리구 포교야 뭐, 정운문스님하구 청소년교화연합회 일을 봤지. 그 분이 청소년 운동 처음 시작한 분이야. 그 분이 불교학교도 만들어서 했구 청소년교화연합회 만들어서 하자구 해서 내가 총재라구 해서 몇 해를 했지.

스님께서는 법보원을 운영하시고 현재에도 한글대장경 전산화작업의 후원회장으로 역임하시는 등 역경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한글주련을 쓰셨다는데 불교의 한글화에 앞장서신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역경원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선학원 있으면서 열반경을 운허스님한테 부탁해서 출판을 했어. 기존에 운허스님이 하시던 법보원이라는 출판사는 새로 역경원을 만들면서 그가 역경원장을 하고 내가 부원장을 하면서 내가 법보원을 맡아서 했지. 한 30년 했지.

처음에 열반경 하구 육조단경두 하구 유마경 하구 현우경두 번역하고 몇 가지 했지. 그러다가 역경원이 있구 하니까 같은 곳이 두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만 두었지. 그때는 그저 경을 우리말로 옮기려 한 거지. 당시에는 한글로 된 경전

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시작했지. 좌우간 지금은 역경원이 작업을 해서 많이 내놓았지만은 다시 잘하는 사람들이 손질을 다시 해야 돼. 물론 잘 해냈지만은 말이야. 지금 전산화 후원회두 그래 하구 있지 뭐.

그리구 계기는 내가 한글을 펴 좋아했어. 해방 후에는 특히 한글

사 명부전, 전등사 명부전두 내 글 써구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제일 많아. 큰법당이라는 편액두 내가 썼지 내가 한글로 했지. 대웅전을 절에서 큰법당이라구 그러거든...

스님께서는 글씨에두 조예가 깊으시다구 들었습니다. 평소 글을 아끼지 않고 써주시며 글을 쓰실 때 <자실인의慈室忍依> <오유

야. 유교경에 보면 말이야. 바로 부처님 글은 이렇게 안썼지만 이런 말을 했어. 안온하게 살려면 죽한 줄 알아라. 죽한 줄 아는 이는 땅에 누워두 안락하구 죽한 줄 모르면 천당에 가두 부족하다 이거야.

이건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또 죽한 줄 모르는 사람은 죽한 줄 아는 사람

강원을 나오면 혼자 경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야 좋겠어.

그래야 맘대루 참구도 하구 그럴꺼 아니야...

좌우간 자기가 강원에 있을때 혼자 경전을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서 나와서 포교를 하더라두 책은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한글을 좋아했지. 한글학회가 있어서 강습이 여러번 있었지. 가서 몇 번을 받았어. 내가 좋아해서 스님 모르게 다녔지. 스님은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

그것두 그렇구 범어사에서 컸는데 범어사에 중국장경, 일본장경두 다 있는데 우리것은 없잖아. 물론 고려대장경이 있기는 있지만 다 한문이지 우리 글은 없어. 그래서 어려두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리구 한글 주련두 내가 제일 처음으루 했지. 그때는 다 한문이었지. 그러니 뭐 일반인들한테 모르는 한문 글 써 붙이는 거 보다는 한글이 낫잖아. 한문 주련두 많지 한문으로 된 건 살아있는 사람중에 전국적으로 내가 제일 많을 꺼야. 제주 한라산 큰 절, 아시지만 범어

지족품唯知足)을 많이 써주신다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절 지을라구들 오면 어지간하면 다 써주지. 거절은 않하지. 여태까지 거절은 안해. 며칠 전에두 하와이 이민 백주년 기념식 전시회 간다구 해서 내가 한 200장 써줬어. 녀자 짜리 큰거루. 요새는 팔이 아파서 많이 못써. 그래두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해서 놀 새가 없어.

<자실인의慈室忍依>는 부처님 말씀이거든 신도들한테 많이 써주지. 가정에는 그 이상이 없어. 그게 제일 좋아. <오유지족품唯知足>은 중국, 일본에서도 그렇게 썼구. 글자 녀자를 한글자루 만드는 거거든. 여기 하나 내놔봐. 이거봐. 여기 오자 잼아. 나는 오직. 여기는 유자거든. 오직 죽한 줄 안다. 생활에 있어서 만족을 안다 이말이

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야. 유교경 내용이 부처님 열반하시기전에 조목조목 모두 좋은 거만 뽑은 거야. 또 일본에 가면 절 정원에 이 글자를 새기고는 물을 떨어뜨리고 그래. 여기 가운데를 오목하게 파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오면 선물로 주고 그래. 그러니 모두 좋아하거든.

아마 현재는 내가 제일 많이 썼을 거야. 지금두 자꾸 써달라구 그래. 여기 정각회 하던 양반두 포교를 하는데 자꾸 써달라구 그래. 이거 말구두 글 내용은 가져와서 써달라면 다써주지. 좋은 글 옛날 것은 다 써주지. 불사한다구 하니까 써주지 뭐.

현재 종단내에서 살아계신 스님들 중 세 남이 아흔이 넘으신 분이 몇 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성철스님 등 원로스님간에 모임을 가지시고 정진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난 성철스님하구 살지는 않았어.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모였었지. 돌모듬회라구 내버린 돌 무더기라구 해서 모임을 가졌구. 난 나중에 입회했지. 고암스님두 오셨지. 일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두 나누구 그랬어. 그리구 지금 저기 중앙

에 관응스님이 아흔 셋이구. 내가 아흔 넷이구. 파계사가면 고송스님이라구 아흔 일곱이야. 그



이가 조계종단서 제일 많아. 드러난 이중에는 제일 많아. 백양사 서옹스님은 아흔이라데... 서로 잘 알지만 요새 많이 못만나지. 고송스님하구 나하구 관응스님하구는 청암수도암에서 같이 한 철 났지. 예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거기서 같이 늦게 났지. 그때가 여든이 넘었을 때야. 큰방서 일반대중하구 같이 있었지.

요즈음에는 출가자들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지고 스님들의 교육이 체계화되고 일원화되면서 출가연령도 제한되고 종단내 교육 환경의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강원에서도 점차 한글로 이력과목을 공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야 그래두 안될건 없지만은 그래두 옛날식으로 하는게 좋아. 문리를 얻어야 내 맘대루 여러 경전을

다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첫째 강당에서는 한문문리를 어느 정도 얻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대장경을 내 맘대루 혼자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강당제도는 옛날 제도가 좋을 것 같구 거기서 어느 정도 문리를 얻어서 경을 보는게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문리만 나면 혼자서두 얼마든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제도는 학교가 좋은거



같아. 대학교 같이 공부하는게 좋을 거 같아. 하지만 문리가 어느 정도 나아돼요. 그런 정도가 되면 대학교 형식으로 되는 것이 낫지. 그리구 나이를 제한하는 건 잘못이야. 예전에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출가를 했어.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 큰스님들의 글을 보면 주력·염불·간경·화두 여러 수행을 말씀 하셨는데 요즘 수행은 너무 간화선에만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요새뿐 아니라 그전에두 그랬구. 염불이나 그런건 노장님들 중에나 하는 이가 있었지, 젊은 이들은 하는 이가 없었지요. 기도나 주력두 좋은 수행이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대로 하는 것이 좋아.

글 다보고 선방가서 공부하는 예전 방식이 좋아. 그렇게 해서 선지식이 배출되구 그랬잖아. 일상에

서 참회하고 발원하는게 중요해. 나는 절에 있으면서 관음대예참을 늘 하지.

마지막으로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말씀하시구 싶은 경책이라든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요새 좌우간 모르지만 선방은 예전보다 정진하는 이가 많아졌어요. 일제때 보다 많아요. 그래서

잘사는 것 같구, 강원에 경보는 것은 어찌 강원 마친 사람들이 글두 잘 못새기는 거 같아. 그래

가지구는 안되잖아. 사집 이런거는 문리를 얻기 위한 거거든. 문리를 얻어서 경을 밑천으로 해서 논강두 하구 그러는데 요새두 그렇게 하는 가는 몰라두. 어떤 사람두 이력 봤다구 해서 해인사서 왔는데두 새기질 못해.

그러니 그전보다는 다르단 말이야. 강원을 나오면 혼자 경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야 좋겠어. 그래야 맘대루 참구도 하구 그럴꺼 아니야... 좌우간 자기가 강원에 있을때 혼자 경전을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서 나와서 포교를 하더라도 책은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다 해주셨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루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요새는 옛날 스님네가 살아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반석盤石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일상日常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 위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이를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잡보장경」 제3:〈4-463상〉



대중생활 속의 독살림

능인能忍 | 치문

“대중생활 속에서 독살이처럼 살아라”

저번호 청암지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지난 가을산철 기간 중에 전강련 학인대회가 있었다. 어쩌면 가을산철은 학인대회 준비에 모든 대중이 모이는 큰 행사인지라 조용하기로 소문난 송광사 강원도 대회 준비로 떠들썩 했다. 나는 치문반 도반 6명과 함께 연극을 하게 되었다. 제목은 ‘도마야 놀자’, 형식은 난타 공연이었다. 보름 정도의 기간동안에 연습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든 벽이었다.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했고 난타공연으로 인한 소음관계상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추운 가을날씨와 싸우며 운동장에서 하루 네 시간동안 연습을 했다. 음향은 빌린 카세트에 마이크를 연결시켰으며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사자루 안에서 다른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계의 눈초리를 번쩍여가며 안무 연습을 했다. 춥고 배고프고 실력은 빨리 늘지 않고 정말 악전고투였다. 하지만 찰중스님의 파격적인 지원과 도반 스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우리의 오기와 책임감으로 무사히 연습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보원스님이 난타공연의 경험이 있었고 나와 무인스님이 연극경험이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6명의 인원이 보름안에 연극과 난타 안무까지 들어가는 작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구심으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불가능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어쨌든 우린 날마다 추위를 비롯한 팔만사천의 마군과 싸워가며 허허벌판 같은 운동장에서 네 시간씩 도마에 칼을 두들겨 댔다.

대회 이틀전, 모든 강원 대중과 사중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리허설을 하게 되었다. 짧은 준비기간과 많은 난관 속에서 상실된 자신감, 그리고 대중들의 반신반의하는 모습... 하지만 ‘어쨌든 부딪쳐보자’는 심정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간의 갈고닦은 실력을 드러내 보였다. 결과는 대만족... 공연 후에 모든 스님들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그렇게하여 해인사에 가서도 공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낮은 무대장치와 음향시설에 우리는 혼동을 했고 리허설의 대성공으로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트려 긴장을 잃어버린 탓으로 3등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지만 우린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두었기에 그다지 아쉬움은 없었다.

내가 다시 연극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보름동안 도반스님들과 함께 만들어간 시간의 기억은 영원할 것이다.

전문인들과 세속인들에 비한다면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스님들이 만들어낸 보름간 작품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서말은 물고기도 중 셋은 데리고 못간다’는 말에 반하여 너무도 열심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욕행을 함께 했던 도반들에게 ‘멋지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대중생활 속에서 전체의 일부로 살면서도 그 가운데 독살림처럼 자신만의 노력과 수행을 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혜일慧日 | 치문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악으로부터 멀리 해야한다. 스스로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으면 후회하지 말고 너무 약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했던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인줄 알며 받아드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 해야하고 노력해야하고 고쳐야 한다. 만약 이해했을 때에도 받아드리지 않거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바로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때는 아무리 고칠려고 해도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면은 안된다. 스스로의 생각가짐, 몸행동 그리고 언어를 바르게 해야한다. 모든 악한 행동과 생각을 버리지 못해도 우리는 버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한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 자기부터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모든 슬픔과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드리면은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고 나쁜 마음으로 받아 드리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 사람은 근심, 걱정과 슬픔을 많이 하면 안된다. 이 3개가 커지면은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진다. 한번 어리석음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생각으로써 배우는 것 보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일을 한 다음 후회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걸로 알며 그때 그때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계속 슬프게 하니까요. 자기 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더 괴로운걸...

우리는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남을 해치는 것은 역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역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혜일慧日스님은 방글라데시 스님으로 한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송광사 강원예 입학 정진 중입니다. 현재 치문반에 재학 중이며 강원스님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까닭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아직 서툴지만 항상 씩씩하고 다부진 모습에 수행자로서 제법 여법한 품모가 느껴집니다.

가정정도를 발원하며

지명^{智明} | 사집

처음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 소임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무척 곤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표현력 있게 말하지도 못하며 무엇보다도 문제 많았던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서 자리를 쉽게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던중... 발우공양 하기 전 발우를 이마에 정대하면서 ‘그래! 밥값을 해야한다’는 생각과 내가 출가한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출가하기 전 ‘한방울의 피라도 전법을 위해 쓰겠다’고 맹세했던 발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멋지게 한 번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과 사상을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자’는 생각으로 지도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법회를 보면서 이번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비유를 들어야 알아듣기 쉽고, 깊게 이해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독감이 유행하던 때의 법회날, 차를 몰고 아이들 학교 앞에 도착하기 전 많은 학생들이 우산없이 비를 맞으며 도로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혹시 아이들이 집에 가버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멀리 정문 앞에서 모두 모여 장난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마음을 놓는 한편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유행하던 독감에 걸려 있음에도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비록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애들이 말투와 행동이 변한 것 같다’ 하는 말을 들었을때 보람과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회의 운영내용은 부처님 일대기를 전생부터 시작하여 이어오면서 중요한 사상과 교훈을 뼈대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더불어 있는 학교 친구들과 가정의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생활속에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의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반에 한명쯤은 있음직한 ‘왕따’ 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관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스스로 바뀌어나가겠다는 주인공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침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란 인사와 저녁에는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려 보십시오. 부끄러워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바뀌면 가정과 학교와 이웃이 바뀝니다. 문앞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친구나, 이웃, 가족들이 대신 깨뜨려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망치와 정을 들고 조금씩 깨뜨려 보십시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몇 년 전 저의 외삼촌이 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술을 찾을 때는 세상에서 술이 제일 중요 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고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물을 애타게 요구 하였을 때는 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더군요.

부처님께서서는 영어 수업시간에 수학책 펼쳐놓고 공식 외우는 학생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셨고,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공부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노래방에 가서는 열심히 춤추며 노래 부르고 여자친구 만날 때는 마음껏 멋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정토 발원문〉

아버님은 어머니를 머금었고

어머니는 아버님을 품었으며

나는 양친을 다 안았으니

내가 바로 가정의 주인이요 생명이구나!

- 나무아미타불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4

도해度海 | 사교

요즈음 TV에선 사투리 개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표준말들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개그로 꾸민 것인데 그 예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전라도에서는 ‘아아따 거시기 하아요!’ 라고, 경상도에서는 ‘내 아아를 낳아도!’ 라고 하며, “당신 입술이 참 예쁘군요.”를 전라도에서는 ‘아아따 후우꾼 달아 오르는구만잉.’ 경상도에서는 ‘니이 찌 잡아 무웃나?’ 라고 한답니다.

하하하하하하...

저도 살던데 가 부산인지라 전라도 쪽 말은 모르겠지만 경상도 말은 정말 잘 나타내었구나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밥도!, 아아는?, 자자!”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함을 어찌 그리 정확하게 잘 알고 나타내었는지... 이 이야기 듣고는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강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각의 본사에서 오신 스님들이 같이 모여 살아서 그런지 말들로 웃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송광사 강원은 외국에서 공부하러 오신 스님들이 계셔서 그들로 인해 웃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번은 러시아에서 오신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은 이젠 우리들 보다 한국말(여기서 한국말은 각 지역 사투리를 모조리 포함)을 더 잘합니다. 한번은 노트북의 과도 사용으로 그만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하는 말인즉, “웁쓰! 안되네! 아아따! 죽겠구마이이, 맛이 완죤니 가버리구마이”

크크크!

또 영국에서 오신 스님이 계십니다. 윗반 스님이 이 스님의 멋트러운 생활를 강도 높게 지적을 했나 봅니다.

“스님! 힘들더라도 대중생활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쿵 저렇쿵 하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스님!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그러자 이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외국인스님 曰 “써어님(스님)! 잔머리가 모예요(뭐예요)?”

윗반스님 曰 “허걱! @\$#%\$#@^&”

이번엔 모두가 뒤로 넘어졌던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스님이 어디서 이 말을 배웠는지...

능엄경 강의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이 스님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해석을 합니다. 줄줄줄! 글도 잘 보는지라 우리네들 보다 한문 실력이 더욱 뛰어나서 막히는 곳이 있으면 종종 이 스님에게 묻고 합니다. 한참 나가다가 한 번 터뜨립니다.

“보래(본래) 이서던(있었던) 여래장묘진여성은 어리에(어디에) 쩡박혀따가 나와른가(나왔는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감출 藏을 감추어졌다가 또는 숨었다가 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대방에서 간혹 쓰이는 것을 이 스님이 고대로 배웠나 봅니다. 그것을 바로 즉설주왈로 ‘짱박혔다’ 를 내뱉었으니 얼마나 우스웠던지 강의시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크크크!

이번엔 이 두 스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소임을 정하다 보니 산철이다가 안내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사중 안내소임을 이 두 스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였습니다. 하필 이 때 안내가 들어올 게 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까 하다 ‘모르겠다! 하구 그냥 아랫반 이였던 영국에서 오신 스님을 안내자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종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내를 잘 모르는 스님이 하면 어찌냐구, 사교반에도 안내 소임자가 있으니 그 스님을 보내라구.”

그래서 우리들은 ‘아아 잘 모르겠구나’ 하고서 그래도 일년을 더 살았던 사교반 안내 소임자인 러시아에서 온 스님을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종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 장난 치냐” 고.

“강원에서 안내 소임자가 그 두 스님입니다” 라고 말하니 종무소에서도 할 말을 잇어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있는 송광사 안내를 외국인한테 안내를 받은 이상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크크크!

이 스님에게 우리말 중 어느 말이 쓰기 제일 좋냐고 물어보니 ‘거시기’ 라고 하더군요.

자기나라에는 쓰이지 않는 말인데 말문이 막히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거시기’ 라고 하면 아주 편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진짜 뿔이 달려서 우리 남쪽사람들을 잡아먹는 줄만 알았고, 저는 부산에서 주로 살아서 그런지 불과 여기 송광사에 살기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을 이곳으로 오면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안파는 줄만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보니 외국이나 여기나 저기나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곳임을 알았고, 다 같이 더불어 고민하구 힘들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강원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경상도 스님이 받으면 “아아따 쫄오까 지다리쇼오!” 라고 하고, 전라도 스님이 받으면 “그래예! 잠시만예!” 하면서 서로서로 장난치면서 웃기도 합니다.

다 같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힘들어 할 때는 차 한 잔 건네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고 같이 포행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즐거울 때는 같이 웃고 떠들고 장난도 치면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똑같은 도반들임을 향기 나는 삶이란 더불어 사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혹 외국인들은 “웁쓰”, “웁쓰”라고 많이 합니다. ‘아차’ 또는 실수를 했을 때 간혹 쓰는 말인데 그걸 우리네 스님들도 배워서 간혹 사용을 합니다.

“아아따! 엽!씨!”

두려운 편리

성경性鏡 | 대교

오래전의 일이다. 우연한 기회에 옛 우리 조상들의 전통스런 풍속과 문화를 생활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로 유명한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청학동마을을 들르게 되었다. 오랜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탈바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전통스런 정서와 생활방식을 지켜가고 있는 청학동에 대한 신비스러움과 동경의 눈길을 가득 담고 마을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초가집으로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안에는 밖에서 보던 마을의 고풍스런 인상과는 전혀 달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현대식 생활물품들로 가득하여 우리 조상들의 옛 풍습과 숨결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외의 충격에 실망을 금할 길 없었다. 밖에서 보는 외형적인 전통적인 인상과 안에서 보는 현대적인 이미지가 주는 심한 부조화에 어느새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향수는 사라지고 까닭모를 불신을 느껴야 했다. 아마 그때의 일이 전통문화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과 과학분야의 계속되는 발전으로 인해 물질문명의 놀라운 진보와 함께, 세상은 변천을 거듭하여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들 생활주변은 전보다 훨씬 편리한 대중매체와 물품들을 사용하며 현대문명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이기에 더욱 길들여지고 정신문화와 가치관도 서구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전통스런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 절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바깥세상의 물질적 편의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어느 사이에 예전에 비해 훨씬 좋고 편리한 매체와 물품들을 사용하며 승가 고유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일주문 앞까지 차량들이 들어오고 종무소앞 마당에는 승용차가 줄지어 주차하여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 기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법당에는 안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 지대방 안에도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먹을수 있는 최신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물질적 편리야말로 승가의 전통과 수행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우리 스님들에게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변화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물질적 편리함에 주는 안락함에 젖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 것을 고집하는 전통을 소외시 여기기 쉽고, 정신수행의 힘들고 어려운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우연히 전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는 학인스님의 모습에서 왠지 출가의 본분과는 거리가 먼 듯한 인상을 받아야 했음은 잘못된 편견일까? 컴퓨터는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즈음 시대에 스님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자칫 물들 수 있는 편리를 경계하는 뜻에서이다. 편리에 물들고 집착할수록, 수행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옛 조사스님들께서도 누누이 이르시기를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안하면 도道を 구하려는 마음이 더욱 게을러지고, 춥고 배고프고 궁핍할 수록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천하기 마련이다. 지난 시대에 새로운 것이 지금 시대에는 낡은 것이 되고, 지금의 새로운 것이 미래시대에는 낡은 것이 되고, 무한한 시간에 걸쳐 생성과 소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의 흐름인 제행諸行은 무상無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은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쉬어버리고, 오히려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고유의 옛 전통을 오늘에 그대로 이어받아 슬기롭게 지켜나갈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지난 해 10월 송광사강원총동문회가 발족되어 창립법회를 가지고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송광사강원총동문회의 이모저모를 정혜사 편집실에서 들여다 보았다.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창립법회 모습

■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창립법회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 물소리...

조계산 자락을 타고 청명한 바람이 휘감는 초가을 오후... 지난 해 10월 7일 오후 2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창립법회가 거행되었다. 강원 재학생과 동문스님들의 만남이라는 이날 행사는 송광사의 어른 스님들을 비롯한 전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충분했다.

올해로 열 네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송광사 강원이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동문 모임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 동문스님들은 물론 재학생들의 아쉬움이기도 했었다.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맺은 결실이라 더욱 더 빛나는 자리였지만 무엇보다도 선후배간의 인연을 나누고 서로간의 수행과 정진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의 얼굴에는 식전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오경스님(6회 졸업, 서울 법련사 주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순에 따라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치고 동문회 창립에 대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송광사 율주 원명스님의 법어를 시작으로 회주 법흥스님의 치사와 주지 현봉스님의 축사가 이어져 사중 어른 스님들의 강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어려웠던 시기의 송광사에 대한 회고와 함께 송광사 강원의 양적 질적 발전에 대한 감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역대 강주로 재직하셨던 파계사 종진스님의 축사와 함께 현 강주이신 현진스님의 축사는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역대의 교수진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총동문회로써의 자리를 만들기 부족함이 없었다.

어른 스님들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이 끝난 후에는 총동문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회장단 소개가 있었다. 이날 창립법회에 앞서 열린 동문회의에서는 회장단 및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는데, 총동문회장에는 일귀스님(1회 졸업, 송광사 교무)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덕조스님(2회 졸업, 서울 길상사 주지)과 고경스님(3회 졸업, 송광사 박물관장), 총무에는 오경스님(6회 졸업, 서울 법련사 주지)이 소임을 맡게 되었다.

총동문회장 일귀스님은 인사말에서 먼저 총동문회가 창립하기까지 애써온 여러 동문스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송광사 강원에서 수행자로서의 첫 걸음을 걸었던 아련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송광사 강원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온 강원의 교수진과 사중의 어른 스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문스님들 및 재학생들의 동문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만남을 자축하고 송광사 강원과 맺은 인연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심는 시간이 되었다.

■ 총동문회 회장단 인터뷰

창립법회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동문스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4기 스님들의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속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간단한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현재 송광사강원총동문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덕조스님(2회졸업, 서울 길상사 주지)과의 1월 24일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창립에 앞서 졸업 기수의 기준과 졸업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학인스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13기 까지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졸업 1기생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원은 지금처럼 기본교육기관이라는 강제적인 교육조항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또한 서류라던가 행정적인 자료도 많이 미비했구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4년제 과정이 정착되었지만 그때는 실질적으로 3년제였어요. 졸업문제는 지금 1기로 되어있는 스님들이 3년 과정을 마치고 화엄경을 보는 문제가 얽혀서 졸업을 인정하는가 하는 여부의 문제로 되었던 건데요.

여하튼 동문회의에서는 행정적인 문제의 여부를 떠나서 송광사 강원을 유지하고 이끌어 오는데 가장 중심이었던 기수, 실질적으로 강원에서 생활하면서 강원의 초석이 되었던 그런 기수를 원기수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일귀스님을 비롯한 시기의 스님들을 졸업 1기로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송광사강원총동문회가 성사되기 까지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전에도 동문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동문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광사 강원 나오신 스님들이 대체로 모임 같은데 참석하지 않는 특성도 있고 해서 성사는 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원이 누적되고 동문회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송광사 가서 객방에 묵다보면 강원스님들을 봐도 안면도 없고 제가 강원 졸업하고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후배스님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윗 기수 스님들이 주지직이나 소임을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배들 역할을 해야겠다고 의견이 점차 모아졌지요.

중간 기수 스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종지스님 같은 분의 역할이 컸어요. 종지스님 같은 경우 중간 단계로 강원 동문수첩 작업도 하구 그랬어요. 기존 졸업생

과 현 재학생의 연계 역할을 할만한 중간기수가 생기고 활동력을 가진 스님이 나오면서 동문회 설립문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회장단과 임원진이 선출되고 창립법회도 거행하는 등 활동에 따른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차후 동문회의 활동 방향은 어떠한지요... 얼마 전에도 회장단이 모여서 임원회의를 했어요. 강원 스님들에게는 매 결제마다 대중공양 형식으로 후원을 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식 때 동문회장상을 마련한다던가 해서 관심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결속하여 실질적인 회원의 확보를 통한 유대관

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우선 첫 목표입니다.

■ 2002년 12월 28일 임원총회

다음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12시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임원총회에서 심사된 내용 및 의결된 내용이다.

- 1) 연말회계 및 감사보고의 건.
- 2) 외국 유학중인 동문에게 장학금을 지급.
- 3) 동문 경조사 참여.
- 4) 강원 스님들의 안거 때 대중공양금(금일봉) 전달.
- 5) 2003년 사업으로 동문수첩 재발간.
- 6) 매년 음력 9월 2일 효봉사님 기일에 맞추어 동문회 총회 개최.

송광사강원총동문회 회장단 및 동문명단

총동문회의 창립을 계기로 재학생을 비롯한 동문스님들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동문스님들의 명단을 기재한다.



• 송광사강원총동문회 회장단

- 會長：一歸(1회 졸업, 송광사 교무)
 副會長：德祖(2회 졸업, 서울 길상사 주지), 古鏡(3회 졸업, 송광사 박물관장)
 總務：悟鏡(6회 졸업, 서울 법련사 주지)
 幹事：宗旨(9회 졸업, 수좌), 鍊光(12회 졸업, 화엄사 중강)
 監事：大鏡(2회 졸업, 수좌), 慧首(4회 졸업, 봉선사 능엄학림)



• 동문명단

- 1회：一歸, 覺性, 眞空, 志允, 志禪, 正道
 2회：德祖, 圓珣, 大原, 大鏡, 圓釋, 松剛, 宗面
 3회：古鏡, 慈林, 善知, 圓定
 4회：慧首
 5회：印鏡
 6회：德仁, 悟鏡, 道香, 如鏡, 修鏡, 恆寂
 7회：僧國, 眞鏡, 戒星, 修然, 何一
 8회：老休, 正墨, 光忍, 寶積, 蓮海
 9회：宗旨, 本然, 道諦, 閑雲, 慈月, 松圓, 道綱, 然修, 阿道, 道宣, 道垠
 10회：摩空, 日大, 智眼, 然覺, 正倫, 道謠, 乘爽, 太然, 然峰, 凡遇, 念慧, 寶眼, 本覺
 11회：日法, 無念, 弘根, 性久, 德宇, 寶日, 慧輪, 應眞, 圓覺, 禪門, 大用
 12회：光鮮, 寄撤, 鍊光, 正山, 道彬, 道潭, 華眞, 慧燈, 普覺
 13회：能圓, 度晶, 眞觀, 光化, 念濟, 石牛, 知泉, 妙刻, 然一



도반을 보내며

무량無量 | 치문

행자시절 가장 절친한 도반이었던 스님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다.

하안거를 마치고 군입대 관계로 3년간 휴학을 하고 곁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하계 수련회에 참가를 하고 마치면 집으로 갈 것이지, 은사스님의 꺾임(?)에 속아 객실 신세로 한 달 여간을 지내고 드디어는 삭발을 하고야 말았다.

나보다는 삭발이 2,3일 늦어 좌차가 조금 낮게 들어왔고 도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탓에 행자실 내에서 여러 도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다.

처음 들어와서 채공 소임을 맡았는데 칼을 쓸줄 몰라서 매우 서툴렀지만 상한 연근으로 칼질을 연습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시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고서는 모든 도반, 보살님들로부터 칼질을 칭찬받기에 이르렀는데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만했다.

6개월 여의 행자생활과 3주간의 행자 교육원 과정을 마치고 수계하여 승복을 입고 마주 대하니 조금도 손색이 없는 둘 다 어엿한 스님의 모습이였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터라 힘이 들때면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그렇게 도반들과 부딪치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힘이 들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나역시 스님의 열심인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경책하곤 하였다. 강원에 함께 입방하여 그렇게 하안거까지 무사히 마치고는 휴학을 하고 멀리 떨어져 지금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다.

입대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을산철 방학 기간중 대전에서 만나 함께 3박4일간의 만행을 다녔다. 바닷가로, 서울로, 스키장으로 다니며 아쉬운 이별의 아픔을 달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함께 만나서 위법망구爲法忘軀하는 수행인으로 만나길...



한 해를 맞이하여 은사스님을 회상하며

향음齋音 | 치문

세월따라 인연따라 흘러온 치문반생활... 벌써 동안거 반결제...

언제 치문반에서 벗어날까하는 생각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 출가 발심한 목적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생활들...

손가락으로 하루 이틀 날짜를 세면서 치문반 생활을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즐거웠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 하기도 하고...

속가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버리려고 했는데, 먼 과거의 일처럼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려 했던만...

중물이 덜 들었는지 나의 치문반은 아직 피지못한 꽃송이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예전의 어설픈 모습 그대로인 채로...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건지,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들의 자취에는 얼마만큼 다가선 것인지...

스님! 정말 죄송 합니다. 입산을 하여 행자생활을 하고, 지금은 스님의 은덕에 회색옷을 입고 제자가 되어 신도들의 공경과 시주를 받으며 생활한 지 어언 세 번째의 겨울...

어떤 때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속가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형님처럼 다정하고 따뜻하신 스님을 생각하면 잡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도반스님들이 은사스님께 연하장을 보내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더 죄송한 마음에 차마 새해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아프지 말고 건강 하게 생활하다가 오거라.”

한 안거 한 안거 끝나고 방학갈 때마다 당부하신 말씀... 방학이 끝나 다시 강원에 복귀 하던날. 절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바라 보시면서 마치 속가의 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 같이 먼발치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며 존경하는 스님께서 생각했던 100%의 보답은 못 해드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할 것입니다.

정말 정말 존경하는 스님 죄송합니다.

은사스님을 생각하며

송광사에서...

詩가 있는 풍경

소나무

선광禪光 | 사미

고고하게 우뚝솟은 소나무에
허공에서 눈꽃들이 바람줄을 타고
물결따라 사그락 사그락 소리를 내며
고요히 내려 앉는구나.

세월의 무게만큼 의젓한 소나무는
선정禪定에 들어서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온몸으로 화두를 알려주니
사계절 속에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動動靜의
깊은 뜻을 새기고 새겨
혜안慧眼을 열고
몸소 수행하라고

깊은 밤 둥근 보름달이
소나무 가지에 걸려 빛을 발하누나.

무제

혜덕慧德 | 치문

무명세계에 한 서광을 던져주신
싯타르타는 작은 고행자
세상 무엇으로 그 섭리에 비하리오.
내소망 모두 그대에게로
동녘별 바라보던 설산에의 고행
성불도에 이르시니
당신은 진실한 내 스승
나를 제도하소서.
불佛은 내 큰 희망이요
진실한 내 스승 이시리라.
불佛은 내 큰 희망이요
진실한 내 스승이시리라.
억만겁토록 내 그를 따르오리라.
영원하도록 내 그를 따르오리라.

정견正見2

효산曉山 | 사교

어느 날, 분노忿怒의 불길이 송두리째 날 태우던 날
나의 도반道伴은 옹달샘 속 자갈돌 같았습니다.
분노의 고통이 후회와 원망의 두 다리로 뻗쳐
내 삶을 온통 몸부림치게 하였을 때,
나의 도반은 몇 백 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변함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전생에 한 마군魔軍이 그랬던 것처럼, 눈(目) 대신
자갈돌을 힘껏 내동댕이쳐도, 또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쥐고 땅바닥에 깨뜨려 보려 했지만
어느새 내 좁은 손안에서 체온과 따뜻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울가 발가벗고 몸 말리던 어린 친구처럼
꺾기에 갖다대면 까르륵거리는 미소微笑의 돌무늬가 들렸습니다.
아무런 물감 없이 그렸는데도
몇 백 년 물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맑고 단단하였습니다.

몽산법어蒙山法語(영역)

해안海眼 | 사집

우리말로 번역된 한문원전 가운데 자칫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영어나 다른 언어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문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한 요즘 세대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영어로 옮겨 본다는 것이 자칫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우를 범할수도 있겠지만 송광사 강원에 재학중인 해안스님의 도움으로 불교원전을 영역하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蒙山和尚 示古原上人

몽산화상蒙山和尚이 고원상인古原上人에게 보인다.

Mongsahn Instructs Venerable Gowon.

원문)1. 話頭上에 有疑不斷하면 是名眞疑니 若疑一上少時하고 又無疑者이면 非眞心發疑라 屬做作하니라 是故로 昏沈掉擧가 皆入作得하리라.

한역) 화두에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참의심이라 이름하니, 만약 의심을 한번 잠깐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진심眞心으로 의심을 발한 것이 아니라 주작做作에 속하느니라. 이런 연고로 혼침과 잡념이 다 마음에 들게 되느니라.

영역) If you have uninterrupted doubt on your hwadu, this is called true doubt, but if the doubt fades after a short time, this is not true doubt, but is due to straining in your practice. If this is the

case, you will be affected by dullness and restlessness.

2. 更要坐得端正호리라 一者엔 睡魔來커든 當知是何境界호리니 者 覺眼皮重하거든 便着精彩하야 提話頭一二聲 하야 睡魔가 退커든 可如常坐하고 若不退커든 便下地하야 行數十步하야 眼頭가 清明커든 又去坐하야 千萬照顧話頭하며 及常常鞭起疑하야 久久하면 工夫가 純熟하야 方能省力하리라.



다시 앉음에 단정함을 요하느니라. 첫째는 수마睡魔가 오거든 마땅히 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하리니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깨닫거든 문득 정신을 차려 화두를 한두번 소리내어 들어서 수마가 물러가거든 그대로 앉아 있고, 만일 물러나지 않거든 문득 땅에 내려 수십보를 포행하여, 눈이 청명해지거든 또 자리에 가서 천만번 화두를 비추어 보고, 한결같이 채찍하여 의심을 일으켜서 오래오래 참구하면 공부가 순숙純熟하여 바야흐로 능히 힘을 덜게 되리라.

You must sit upright, and if the daemon of sleep arises, you should be aware of your state of mind. As soon as your eyelids begin to feel heavy, immediately collect yourself and repeat your hwadu orally once or twice. If the daemon of sleep recedes, you should carry on sitting, if it doesn't, you should immediately descend from the meditation platform, and walk for a few tens of paces. Once your head and eyes have cleared, return to your seat and investigate your hwadu. Spur yourself again and again to give rise to doubt, and after a long time passes, your meditation work will mature, becoming effortless.

3. 做到不用心提話頭하야도 自然現前時하야 境界及身心이 皆不同先已하며 夢中에도 亦記得話頭하리니 如是時에 大悟가 近矣리라.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화두가 현전할 때에 이르르면, 경계와 몸과 마음이 다 이전 같지 아니하며 꿈속에도 또한 화두가 들리리니, 이와 같은 때에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라.

When you reach the point where your hwadu appears effortlessly before you, your body, mind and the external world will not be the same as they once were, and you will even remember your hwadu in the midst of your dreams. At this time you are close to a great awakening.

4. 不得將心하야 待悟이니라 但動中靜中에 要工夫를 無間斷호리니 自然히 塵境은 不入하고 眞境은 日增하야 漸漸有破無明力量하리라 力量이 充廣하면 疑團이 破하며 無明이 破하리니 無明이 破하면 則見妙道하리라.

문득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지니라. 다만 동중動中과 정중靜中에 공부가 간단間斷이 없어야 하리니, 자연히 티끌 경계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참경계는 날로 증진하여 점점 무명無明을 타파할 역량이 있으리라. 역량이 충실하면 의단이 무너지고 무명이 깨지리니, 무명이 깨지면 곧 묘도妙道를 보리라.

However you must not consciously wait for awakening; whether in motion or in stillness, just keep your meditation work uninterrupted, and you will naturally not enter defiled states, and the realm of truth will daily increase. The strength to smash ignorance will gradually develop, and when this strength becomes replete, the ball of doubt will explode, smashing ignorance. When ignorance is destroyed, you will immediately see the Mysterious Way.

5. 夫參禪은 妙在惺惺하니 靈利者가 先於公案에 檢點하야 有正疑커든 ° 不急不緩하야 提話頭하야 密密廻光自看하면 則易得大悟하야 身心이 安樂하리라.

대저 참선은 묘함이 성성惺惺한데 있으니 영리한 자가 먼저 공안을 점검하여 바른 의심이 있거든 문득 급하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게 화두를 잡아 밀밀히 빛을 돌이켜 스스로 관조하면 곧 쉽게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안락하리라.

As for the practice of meditation, its wonder is in clarity. If you are sharp, you should first examine the kongans, and if correct doubt arises, keep your hwadu without too much intensity, or without letting it go too slack. If you can turn the light of awareness around and observe yourself closely, it will be easy to attain a great awakening, and your mind and body will be at ease.

6. 若用心이 急하면 則動肉團心하야 血氣不調等病이 生하리니 非是正路라 但發眞正信心하야 眞心中에 有疑하면 則自然히 話頭가 現前하리라 若涉用力舉話時엔 工夫가 不得力在하리라.

만약 마음씀이 급한 즉 육단심肉團心이 동하여 혈기가 고르지 못한 등의 병이 생기리니 바른 길이 아니니라. 다만 바른 신심을 발해서 진심眞心 가운데에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현전하리라. 만약 억지로 힘을 써서 화두를 들어 나갈 때엔 공부에 힘을 얻지 못하리라.

If you are impatient in your practice, your heart will be affected, and the sickness of unrestrained blood and vital force will develop. This is not the correct way to practice. Just give rise to sincere faith, and through this faith doubt will arise, and your hwadu will naturally appear before you. However, if you strain to raise your hwadu, you will not gain strength in your meditation work.



7. 若動中靜中에 所疑公案이 不散不衝하며 話頭가 不急不緩하야 自然現前하면 如是之時에사 工夫가 得力호리니 要護持此箇念頭하야 常常相續케하야 於坐中에 更加定力으로 相資가 爲妙하니라.

만약 동중動中과 정중靜中에도 의심하는 공안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뺏지르지도 아니하며,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아니하여 자연이 현전하면, 이와 같은 때가 공부에 힘을 얻은 때이니, 이 경계를 지키고 보호하여 항상 이어지게 하며, 좌중에 다시 정력定力을 더하여 돕는 것이 묘함이 되느니라.

If in motion and in stillness your selected kongan is not scattered and unmoving, and your hwadu appears before you without being too tense or too slack, at such a time your meditation work will gain strength. You must preserve this awareness, and keep it constant, and then when you sit, the strength of your Samadhi will increase. This state is truly wondrous.

8. 忽然築着 着에 心路一斷하며 便有大悟하리니 悟了코사 更問悟後事件하라.

홀연히 댓돌 맞듯 댓돌 맞듯 마음길이 한번 끊어지며 문득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깨달아 마치고서 다시 깨닫고 난 후의 일[悟後事]을 물을지니라.

All of the sudden, like the thump of a mortar and pestle, the road of the mind will be cut off, and you will experience a great awakening. After you're enlightened, inquire once more of the affair after awakening.

원나라 고승이신 몽산덕이화상蒙山德異和尚의 몽산법어蒙山法語를 발견한 것은 간화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화두수행의 요긴한 부분을 제시한 내용이어서 제가 보아온 선어록 중에서 가장 아끼는 글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고승이신 나옹懶翁스님의 글도 접할 수 있어서 조계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몽산법어蒙山法語는 아직 영역본이 없는데다가 조사스님의 말씀을 영어로 풀이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자란 실력에도 불구하고 영문번역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사람들도 이러한 소중한 법문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 ▶ 송광사강원총동문회가 설렘과 기대 속에 창립법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돈독한 정으로 하나하나 좋은 결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 순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직장 자위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송광사의 소중한 문화재는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열의로 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재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
- ▶ 해인사에서 건강권 학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라도 하듯이 숨어있던 장기들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회였습니다. 종합순위는 3위였지만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은 송광사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 ▶ 겨울이면 개울물과 어우러져 장관이 연출되는 것은 김장운력날만의 진풍경... 숨죽여 밤새운 푸른 잎들을 맑은 물에 행구는 모습만 봐도 절로 군침이 돕니다.
- ▶ 동안거에 들어서면서 사자루에서 서예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널찍한 바닥에 화선지를 깔아놓고 한획 한획 정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아하니 해제 무렵에는 제법 글 품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 ▶ 임경당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이번엔 해청당이 새단장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기와 벗어내고 새로 곱게 이은 모습을 어서 볼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 ▶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스님들도 투표장을 찾아 한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데는 승속이 따로 없겠지요?
- ▶ 전산실을 넓히고 컴퓨터를 확충해서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스님들도 컴퓨터를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가 학인스님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봅니다.



2002년 8월 16일 지장기도 입제



8월 22일 하안거 장학금 수여식



9월 29일
원감국사 충지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10월 7일 효봉스님 재



10월 7일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창립법회



10월 16일
직장 자위 소방훈련



10월 25일 전강련 학인대회



11월 17일 동안거 무장무애기도



11월 18일
수석정 상량식



11월 18일 무뽀기 운력



12월 3일 김장 운력



12월 10일
서예반 강의 시작



12월 10일 해청당 보수 시작



12월 16일 구산대선사 19기 추모법회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고...



12월 21일 동지 새알 윤력



12월 31일 동안거 반결재 원족산행



2003년 1월 3일
자비수참 가행정진 입제



1월 6일 전산실 새단장 후 개방



1월 12일 어린이 수련회 개최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꾸뚝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해광스님 061)755-5302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48,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용운스님 · 차茶 이야기 17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교재포함)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교재포함)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비디오 테잎

지운스님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 7,000원
진옥스님 · 설법하는 법 1~4 4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도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0660-01-000289 송광사 지장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강원 후원내역

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

송광사강원총동문회 일동

강원 후원금

양중숙님·박정란님·보림사 주지스님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원각사 주지스님·실상사 주지스님·법련사 주지스님·화엄사 주지스님
·화엄사 재무스님·묘관음사 주지스님·율원장스님·율주스님·오봉스님
·삼성불자카드 회장님·송사모 일동·김연순 보살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부산 관음사 신도일동·광주 신평사 신도일동·광주 자운사 신도일동
·광양 삼광사 신도일동·화순 만연사 신도일동·부산 불광사 신도일동
·부산 문수사 신도일동·대구 백홍암 신도일동·순천 대승사 신도일동
·광양 보광사 신도일동·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원각사불일청
년회·해인사부녀의용소방대·문수복지회관·광주불자회

정혜사 후원 감사합니다

김갑숙님·조영숙님·이영숙님·류인석님·김현정님

편집후기

할말이 없다...
이 책 한권이 전부다.
편집위원 시절부터
그저 그렇게 말아온 소임
어느새 우두머리가 되어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던가.
일이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인가 보다.
26호까지 이어온
선배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말없이 따라준
인호, 도갑스님께
고마울 뿐이다.
다음호를 만났으면 좋겠다.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정혜사〉는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세간의 이야기가 세간에 전해진다는 것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전해 들려오는 소식에 저희 〈정혜사〉 편집실은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스님들 및 불자님들이 송광사 강원스님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추억을 되새기고 때로는 신심과 환희심을 갖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본지는 지난 9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하며 많은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5호의 발간과 함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앞으로의 발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후원계좌번호 : 우체국 500660-01-001029 송광사 정혜사

• 문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061) 755-5302

송광사 강원 〈정혜사〉 편집실



東西南北 春夏秋冬 四方四節 各司하니
이 宇宙 進化課業 秩序답게 遂行인데
어찌다 士農工商은 各自破綻 무삼일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사천왕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이다. 동서남북東西南北에서 사계절四季를 지배하면서 인간의 선악善惡을 관찰한다. 사천왕문四天王門은 사찰寺刹에 들어오는 모든 악귀惡鬼를 막고 가람伽藍을 청정하게 지키는 관문關門이다. 송광사의 사천왕문은 1609년 광해군 원년에 중건되었다.